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관한 考察(1945~80)

金 正 年*

<目 次>

- I. 序 言
- II. 韓國經濟 再建期の 概況
- III. 韓國經濟의 成長要因
- IV. 結 語

I. 序 言

우리는 日帝의 오랜 侵略으로부터 解放을 맞았으나 곧 南北의 分斷으로 인해 6.25動亂이라는 民族史上 類例없는 悲劇的인 運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政治的인 混亂과 經濟的인 貧困의 惡循環속에서 우리 經濟社會는 다시 4.19義擧와 5.16軍事革命 등의 엄청난 激動의 變革期를 겪었다.

돌이켜 보건데, 6.25動亂을 전후한 우리 經濟社會는 戰亂 속에서도 慘禍를 극복하고 再建과 復興에 골몰해 왔었다. 사실 당시의 우리 經濟社會의 念願은 日帝의 掠奪의·隸屬的인 經濟一環에서 벗어나서 自給自足經濟體制를 확립하는 데에 있었다.⁽¹⁾ 그러나 이와는 달리 食糧需給을 비롯한 對外貿易, 外國援助, 金融 및 財政, 物價 등의 측면에서 經濟社會의 畸型的이고 痼疾的인 構造的 特性에 기인한 經濟難局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시련기야말로 우리의 歷史上 類例없는 受難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우리 民族의 受難史에 관해 콘론(Richard P. Conlon)의 調查報告書에서 지적한 것이 다시 되새겨지고 있다. 즉 현재의 世界에서 韓國처럼 苦難을 體驗한 나라는 그 類例가 없으며, 여기에 또한 植民地支配, 分割과 치열한 戰爭을 치루었다. 日帝는 韓國經濟全體를 典型的인 植民地型으로 형성시켰으며, 獨立한 韓國에 심각한 不均衡을 遺産으로 넘겨 주었던 것이다. 이 不均衡으로 인해 韓國은 38線이라는 人爲的인 分割로 經濟적으로도 南韓은 農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本論文은 現代造船研究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1) 日帝의 掠奪經濟에서 벗어난 우리의 經濟構造는 한 마디로 不均衡性, 畸型性 그리고 脆弱性과 後進性이라는 代名詞로 표현할 수 있었다. 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十年史』, 1955, p.5 참조.

業에 北韓은 工業에 편중되게 되었다. 다시 5年후에 6.25動亂으로 인하여 韓國은 百萬名의 生命과 30億달리의 被害라는 희생을 치렀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속에서도 韓國國民의 士氣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 奇跡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²⁾

특히 여기서 언급해 두어야 할 사실은 解放 이후의 累進的인 惡性인플레이션이라는 惡循環의 과정이 急進的으로 加速化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의 原因으로는 이미 日帝의 야만적인 掠奪經濟의 產物로서의 構造的인 要因과 6.25動亂 이전의 財政赤字에 기인한 通貨量의 膨창, 그리고 動亂 이후의 農產物收買資金의 放出과 유엔軍의 貸與金, 一般金融機關의 信用創出 등에 기인한 通貨量팽창을 들 수 있다.⁽³⁾

解放이후의 韓國經濟는 生産構造에서 본 封建性과 跛行性, 企業의 資本構造와 經營構造上의 脆弱性과 零細性, 赤字財政의 累積 및 累進的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物價體系와 生産體系의 不均衡 아래서 生産意慾의 위축과 慢性的인 失業의 증가, 對外貿易面에서의 不均衡 등으로 인해 우리의 自立經濟 基盤의 構築마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外國의 低存度는 더욱 加速化되어 갔었다.⁽⁴⁾

本稿는 解放이후의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과 發展過程에 대한 長期的인 考察로서 I. 韓國經濟再建期의 概況, II. 韓國經濟의 成長要因分析에 着점을 두고 있다.

解放 이후의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을 概觀하는 데 있어서 우선 時代的 區分을 아래와 같이 하여 두고자 한다.⁽⁵⁾ 물론 이같은 時代區分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經濟成長과 發展의 長期的인 考察에 매우 유익한 基準이 될 것으로 믿는다.

- (1) 1945.8~1948.8 (解放·軍政·過政期)……經濟的 混亂期
- (2) 1948.8~1950.6 (政府樹立期)……經濟的 整頓期
- (3) 1950.6~1953.7 (6.25動亂期)……戰時經濟轉換期
- (4) 1953.7~1954.6 (休戰·還都期)……戰力調整 및 經濟再建期
- (5) 1954.7~1959 (戰後經濟復舊期)……經濟復舊期
- (6) 1959 ~1961 (4.19義舉와 5.16軍事革命)……政治·經濟混亂期

(2) 콘론크組, 調査報告書, 『아시아의 現狀, อเมริกา의 政策』, 時事通信社(譯), 1959, p. 203, (韓國經濟).

(3) 崔虎鎭, 『韓國經濟와 經濟學』, 1958, pp. 275-276.

成昌煥, 『韓國經濟論』, 1959, p. 61.

(4)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p. 1-4.

(5) 위의 分類 (1)~(4)는 崔虎鎭, 『韓國經濟와 經濟學』, (1958, p. 274)에 의한 것이다. 한편 第 I 期 軍政~過政期(1947. 6. 24~1948. 8. 14), 第 II 期 政府樹立~休戰期(1948. 8. 15~1953. 7. 27), 第 III 期 休戰以後(1953. 7. 27 이후) 등으로 區分하기로 한다. 韓國產業銀行, 앞의 책, pp. 7-8 참조.

- (7) 1962 ~1966 (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
- (8) 1967 ~1971 (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
- (9) 1972 ~1976 (3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
- (10) 1976 ~1981 (4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

II. 韓國經濟 再建期の 概況

1. 再建期の 生産活動

解放~韓國動亂전후에 걸쳐 각종의 統計資料와 指標들이 거의 작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시의 趨勢와 構造變動을 體系의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일이다.

먼저 <表 1>에서와 같이 解放전의 우리나라의 國民所得은 國民總生産(GNP) 혹은 國民所得(NI) 중의 어느 개념인가는 분명치 않으나 朝鮮總督府 理財局에서 1937~45年の 期間에 20億원~70億원으로 推算한 바 있다.⁽⁶⁾ 또한 1947~55年 사이의 國民소득은 4,544百萬환~528,052百萬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解放後 1947=100基準의 指數에서 본다면 9年間に 거의 12배의 증가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人口를 감안한 1人當 國民所得으로서는 매우 낮은 生活水準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 解放前後의 國民所得推移(1937~55)

年度	人 口 (千名)	國 民 所 得		年度	人 口 (千名)	國 民 所 得			全國小賣 物價指數 (1947 =100)
		金 額 (億원)	指數(1937 =100)			金 額 (百萬원)	增加率 (%)	指數(1947 =100)	
1937	21,374	20	100	1947	19,369	4,544	—	100	100
1941	22,955	30	150	1948	19,880	6,641	46.2	145	158
1942	23,913	35	175	1949	20,189	8,210	23.6	183	197
1943	25,525	40	200	1950	19,886	22,347	172.2	490	532
1944	25,827	55	275	1951	20,027	55,431	148.1	1,219	2,128
1945	25,120	70	350	1952	20,527	184,067	332.1	4,053	5,243
				1953	20,239	229,726	24.8	5,007	7,618
				1954	20,823	338,168	47.2	7,442	10,319
				1955	21,424	528,052	56.2	11,620	15,152

資料：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十年史』(1945~55), 1955, p. 603.

註：1952年 이전 數値는 新貨幣單位에 의거하여 換算하였음.

(6) 한편, 國民所得은 1937年の 20억원, 1944年の 55억원, 1949年の 8,800억원, 1950年の 22,800억원, 1951年の 55,400억원을 1937年 基準의 價格指數에 의해 換算하면, 각각 20억원, 26억 5千萬원, 10억 4千萬원, 11억 2千萬원, 7억 3千萬원이다. 결국 1937年の 20억원에 비해 1951年の 國民所得은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p. 26.

〈表 2〉 國民總生産과 1人當國民所得(1949~53)

項 目	1949	1951	1952	1953
(1) 國民總生産額(百萬환)	44,237	184,067	229,726(24.8)	285,756 (24.4)
物的 生産額(百萬환)	—	112,925	146,038(29.3)	175,275 (20.0)
서비스 生産額(百萬환)	—	71,142	83,688(17.6)	110,481 (32.0)
(2) UN 援助額(百萬환)	—	9,723	18,922(94.6)	47,416(150.6)
(3) 1人當 國民總生産(환)	2,175	8,528	10,434(22.4)	12,788 (22.6)
(4) 1人當 個人消費(환)	—	7,087	8,941(26.2)	8,620(-3.6)
(5) 1人當 被援助額(환)	—	450	860(91.1)	2,121(146.6)
(6) 1人當 國民所得(달러)				
1949~50	87	} 平均 68		
1951~52	56			
1952~53	58			
1953~54	71			

資料：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pp.1~226-229.

註：1952, 53년 ()안의 수치는 對前年增加率임.

이와 같은 國民生活水準을 〈表 2〉의 國民總生産과 1人當 國民所得(1951~53)에서 살펴 본다면, 1952年과 1953年の GNP는 前年度에 비해 각각 24.8%와 47.2%로 增大하였으나, 物的 生産面에서는 29.3~20.0%로 크게 低下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戰爭遂行으로 인하여 生活必需品는 1人當 個人消費支出의 對前年 增減率에서 보면 1952~53년에 26.2~ -3.6%와 같이 크게 不足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援助額은 1952~53년에 94.6~150.6%로 증가하였으며, 政府樹立에서 休戰이후의 1954년까지의 1人當 平均國民所得은 겨우 68달러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과거 '네이산 報告'(1954年 2月 提出)에서 自主經濟年度로 가정한 1959年度の 1人當 國民所得 70달러와 1959年度の 1人當 國民所得(經常市場價格基準) 71달러에도 미달되며, 또한 1939年度の 水準 77달러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⁷⁾

한편 1955年 不變市場價格基準에서 動亂期の GNP推移를 產業別로 살펴 본다면 1950~52年間に 產業別 GNP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同期間的 國民總生産의 對前年增減率인 成長率은 年平均 -4.1%를 기록하였다는 점으로 動亂에 의한 GNP의 減少現象과 이로 인한 外國援助의 급격한 증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⁸⁾

(7) 같은 책, p. 30, 참조.

(8) 네이산 調查報告書에 의하면 그 당시의 會計年度 중의 GNP는 1949~50年の 1769,500,000에서 1952~53年の 1,383,900,000달러로 감소하였고 1953~54년에는 1,721,200,000달러로 다시 증가하여 1949~50年の 水準에 도달한 셈이다.

Robert R. Nathan Associates, *An Economic Program for Korean Reconstruction*, 1954, p. 452.

〈表 3〉 韓國動亂期の 國民總生產의 推移(1949~53)

單位：억원(1955年 不變市場價格)

年 度	第 1 次産業		第 2 次産業		第 3 次産業		國民總生産	成長率(%)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金 額	成長率(%)		
1949	389.3	4.5	87.3	33.9	317.3	10.9	793.9	9.7
1950	356.6	-10.5	57.0	-34.7	267.8	-15.6	681.4	-14.2
1951	301.0	-15.3	47.8	-16.1	290.3	8.4	639.1	-6.2
1952	283.9	-0.6	68.7	43.7	338.5	16.6	691.1	8.1
1953	367.7	29.5	110.1	60.3	390.7	16.4	868.5	25.7

資料：韓國銀行, 『調査月報』, 第15卷.

〈表 4〉 韓國動亂前後의 産業別 國民總生産 構成(1949~54)

單位：%

産 業	1949~50	1952~53	1953~54
農 水 産 品	53.0	50.4	49.3
鑛 工 業	11.2	11.8	9.7
土 木 · 建 築 業	2.7	1.1	2.5
서 어 비 스 業	25.8	22.5	24.8
기 타	7.3	14.2	13.7
國民總生産	100.0	100.0	100.0

資料：高承濟, 앞의 책, 1956, p. 50.

成昌煥, 앞의 책, 1959, p. 123.

다음에는 動亂진후의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構成比를 〈表 4〉에서 정리해 보면 農産物은 1949~50년의 53.0%에서 1953~54년의 49.3%로 감소하였으며 鑛·工産品은 同期間에 動亂의 영향으로 11.2%에서 9.7%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土木·建築業과 서어비스業의 比重은 1952~53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1953~54년에는 1949~50년의 水準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解放이후에서 休戰期까지의 1946~53年間の 主要物資의 生産動向을 1946=100基準에서 살펴보면 平均 4.8倍로 증가하였으나 重石鑛物을 제외한 平均指數에서 보면 거의 2倍의 증가에 그쳤다.⁽⁹⁾ 이에 관해 〈表 5〉에서 解放~休戰期(1946~53), 政府樹立~休戰期(1948~53), 그리고 動亂期(1950~53)에 있어서의 主要物資의 平均生産指數(1946=100)를 계산해 본다면 각 期間의 平均生産指數의 變動은 重石鑛, 陶磁器, 紙類, 綿絲, 소금, 電力 등에서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期間別 總平均指數는 각각 251.1%, 287.2%, 295.3%이며, 이들의 指數에 대한 對前年平均增加率은 각각 39.9%, 37.7%, 33.7%로 거의 상승

(9) 韓國産業銀行, 앞의 책, p.1-2. 참조.

〈表 5〉 主要物資의 生産指數(1946~53)

生 産 品 目	年 平 均 生 産 指 數			對前年 平均增加率 (%)		
	(1) 1946~53	(2) 1948~53	(3) 1950~53	(1) 1947~53	(2) 1948~53	(3) 1950~53
쌀	108.6	109.0	102.3	4.6	2.8	2.5
無煙炭	200.9	223.0	177.5	56.3	54.2	64.7
重石鑛	647.8	788.2	973.0	106.4	82.0	120.0
고무신	507.6	558.0	483.3	74.2	1.1	-3.9
紙類	152.4	172.7	184.8	53.8	65.6	59.7
陶磁器	254.9	305.3	315.8	30.3	34.1	-3.7
시멘트	201.1	222.8	225.0	61.0	59.1	81.3
綿絲	164.8	184.8	186.8	24.4	27.0	10.4
綿布	154.0	168.8	171.0	21.8	22.2	4.5
스금	163.9	187.3	196.5	28.3	35.2	20.6
電力	206.0	239.8	232.8	28.4	31.7	14.2
平 均	251.1	287.2	295.3	39.9	37.7	33.7

資料：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p. I-2에서 作成.

하지 않았다.

또한 이 生産指數의 對前年增加率을 살펴 본다면 역시 1948~53년과 1950~53년에 主食인 쌀과 無煙炭, 고무신類, 세탁비누, 電球, 綿絲類 등의 主要 生活必需品의 生産은 거의 停滯인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國民經濟生活의 生態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이 時期에는 戰爭遂行을 위한 物資不足으로 인하여 주로 民間消費財의 供給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休戰期를 중심으로 한 1952~54년에는 國民總生産 중의 援助額은 5.3~20.5%로 증가함과 동시에 결국 이러한 事態는 1950~60年代의 韓國經濟構造上의 跛行性을 더욱 助成케 한 중요한 原因의 하나로 되고 말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時期의 韓國經濟構造上의 當面課題는 惡性 인플레이션의 累進化와 動亂으로 인한 諸般生産施設의 파괴, 또한 外國援助에 의한 消費性向의 상승 등에 의해 加速化되어 간 經濟構造의 後進성과 跛行性의 解決에 있었다.⁽¹¹⁾

(10) 韓國銀行, 『物價總覽』, 1968, p. 8 참조.

(11) 이같은 問題提起는 1959年 9月, 콘론(Richard P. Conlon)의 調査報告書에서도 韓國의 援助計劃에 관하여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再檢討해야 한다는 것을 報告한 바 있었다. 즉,

(i) 韓國의 에너지와 資本形成을 助長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援助가 가장 效率인 傳導作用을 할 것인가.

(ii) 어느 정도로 援助를 長期計劃과 連動시킬 것인가. 또한 이러한 長期計劃의 妥當성과 推進에 대한 검토에서 美國이 어떠한 責任을 져야 할 것인가.

(iii) 韓國의 國防과 福祉의 측면을 고려한 軍事援助와 經濟援助의 適正한 均衡은 어느 정도

〈表 6〉南韓工業의 萎縮狀況

單位：千圓

產 業 別	1940年度 生 產 額	1948年基準 價格으로 修正한 1940年의 生産額		1948年度 生産額		
		金 額(A)	構成比 (%)	金 額(B)	構成比 (%)	減少率 (%)
紡 織	169,427	61,455,799	24.8	21,567,558	41.0	-35.1
金 屬	13,550	4,900,493	2.0	2,209,197	4.2	-45.1
機 械 器 具	38,312	13,855,918	5.6	3,381,134	6.4	-24.4
化 學	84,846	30,685,404	12.4	15,158,270	28.8	-49.4
窯 業	11,928	4,313,880	1.7	1,426,899	2.7	-33.1
木 工	13,625	4,927,618	2.0	696,877	1.3	-14.1
印 刷	17,213	6,225,254	2.5	1,620,263	3.1	-26.0
食 品 釀 造	210,119	75,991,638	30.6	6,586,941	12.5	-8.7
기 타	126,494	45,747,821	18.4	—	—	—
合 計	686,014	248,103,825	100.0	52,647,139	100.0	21.2

資料：韓國銀行調查部, 『經濟年鑑』, 1949, p. 48.
韓國銀行, 『物價總覽』, 1963, p. 3.

〈表 7〉產業別 就業人口와 構成比(1940~53)

單位：%

年 度	1 次 產 業		2 次 產 業		3 次 產 業		合 計
	人 口	構成比	人 口	構成比	人 口	構成比	
1940	7,840,865	80.2	415,026	4.2	1,526,915	15.6	9,782,806
1941	8,056,714	78.9	531,277	5.2	1,622,304	15.9	10,210,295
1942	7,152,360	73.9	626,580	6.5	1,906,346	19.6	9,685,286
1943	8,354,314	75.9	705,086	6.4	1,948,480	17.7	11,007,880
1949	6,359,579	81.3	301,760	3.9	1,158,652	14.8	7,819,991
1952*	6,361,579	80.0	299,568	3.7	1,301,388	16.3	7,962,535
1953	5,767,260	79.1	225,473	3.1	1,298,708	17.8	7,291,441
1940~43 平均		77.2		5.6		17.2	
1949~53 平均		80.1		3.6		16.3	

資料：公報處統計局, 『大韓民國統計年鑑』, 1952, 創刊號, pp. 29-30.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統計編(14).
註：1952年の 數値는 1952年 5月 1日 現在입.

다시 〈表 6〉에서 1940年の 主要産業部門別의 生産額을 1948年度 基準價格으로 修正한 것
과 1948年度의 生産額을 對比하여 본다면, 1946년에 비하여 1948年の 生産額이 크게 위축
되었다. 즉 紡織工業을 위시한 8個工業部門에서 거의 21.2% 감소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도 紡織工業은 35.1%, 鑛工業은 45.1%, 化學工業 49.4%, 冶業工業 33.1%로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이 解放직후의 政府樹立전후의 混亂期에 있어서 生産活動의 基盤이 가장 脆弱

인가.

コンコン組 調査報告書, 앞의 책, pp. 22-23.

性を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解放직후의 產業別 就業人口의 動態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우선 <表 7>에서 1940년대 前半(解放前)과 政府樹立 이후와 動亂期間의 產業別 就業人口 및 그 構成比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解放前인 1940~43年 平均就業人口의 構成比는 1次産業 77.2%, 2次産業 5.6%, 3次産業 17.2%이었으나, 政府樹立~動亂期에는 각각 80.1%, 3.6%, 그리고 16.3%와 같이 그 당시의 2次産業과 3次産業의 就業人口는 解放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就業構造上的 落後性은 더욱 확대되어 가는 時期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의 就業構造와 비교할 수 없으나 1977~80年 平均 就業構成은 1次産業 37.5%, 2次産業 23.3%, 3次産業 39.5%로 현저한 構造的인 차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 빈약하였던 工業施設마저도 대부분이 北韓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動亂期의 南韓生産施設의 파괴 등이 중요한 原因이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政府樹立 이후의 우리나라 經濟政策에도 큰 原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通貨量과 物價構造變動

解放이후에서 動亂期의 서울과 釜山의 都賣物價와 小賣物價의 變動은 1947=100基準에서 본다면, 1950年 이후에 크게 등귀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物價變動은 政府樹立이후에 다소 安定勢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動亂직후인 1954年 下半期 이후부터는 史上 類例없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¹²⁾ 이로서 1950年 이후에는 産業生産施設의 파괴와 生活必需物資의 不足 등으로 인하여 戰時的 인플레이션은 國民經濟運用에 一大混亂을 가져 왔었다.

<表 8>에 의하면, 解放직후~動亂期(1946~52年)와 政府樹立期~動亂期(1948~52年)의 서울 都賣物價指數(1947=100)의 對前年增加率은 각각 181.5%, 164.5%로 등귀하였다. 또한 同期間의 서울小賣物價指數의 對前年增加率은 각각 156.0%와 143.4%이며 釜山 小賣物價指數도 각각 148.0%와 152.7%로 엄청난 物價暴騰을 초래하였다. 또한 動亂期인 1950~51년에는 위의 3가지 物價의 騰貴, 즉 서울都賣物價 240.8%, 서울小賣物價 212.2% 및 釜山小賣物價 224.1%라는 등귀는 우리나라 物價變動史上 類例없는 기록이 될 것이다. 또한 <表 8>에 의하면 貨幣發行額은 解放~休戰이전까지 거의 82배, 서울都賣物價는 40배, 서울小賣物價는 35배, 釜山小賣物價는 30배 등으로 크게 등귀했으며, 특히 이 期間의 通貨量과 物價의 變動傾向은 거의 동일한 추세로 變動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A.I. Bloomfield and J.P. Jensen, *Banking Reform in South Korea*,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March 1957, pp. 27-28, pp. 31-33.

C.D. Campbell and G. Tullock, "Some Little-Understood Aspects of Korea's Monetary and Fiscal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7, Vol. XLVII, No. 3. pp. 337-338.

〈表 8〉貨幣發行高와 物價變動(1945~52)

(1947=100), %

年 度	貨幣發行高			서울都賣物價		서울小賣物價		釜山都賣物價	
	金額 (百萬圓)	增加率	指數	指數	增加率	指數	增加率	指數	增加率
1945	8,621	—	42.7	11.8	—	14.0	—	19.5	—
1946	10,624	23.2	52.6	55.0	366.1	55.0	292.9	59.2	203.6
1947	20,187	90.0	100.0	100.0	81.8	100.0	81.8	100.0	68.9
1948	31,907	58.1	158.1	162.9	62.9	154.0	54.0	168.4	68.4
1949	46,463	45.6	230.2	223.0	36.9	195.0	26.6	206.8	22.8
1950	88,082	89.6	436.3	334.0	49.8	565.0	189.7	473.8	129.1
1951	408,538	368.2	2,023.8	2,190.3	565.8	2,605.0	361.1	2,352.7	396.6
1952	706,391	72.9	3,499.2	4,750.8	116.9	4,841.0	85.8	5,802.6	146.6
1946~52		106.8			181.5		156.0		148.0
1948~52		126.9			164.5		143.4		152.7
1950~52		176.9			240.8		212.2		224.1

資料：公報處統計局, 『大韓民國統計年鑑』(創刊號), 1952, p. 163.

韓國產業銀行, 『韓國產業經濟十年史』(1945~1955), 1955, p. 603.

〈表 9〉서울物價指數의 變動(1945~60)

(1955=100), %

年 度	서울消費者物價		서울都賣物價	
	指數	增加率	指數	增加率
1945	0.1	—	0.1	—
1946	0.3	200.0	0.4	300.0
1947	0.6	100.0	0.7	75.0
1948	0.9	50.0	1.2	71.4
1949	1.1	22.2	1.6	33.3
1950	3.3	200.0	2.5	56.3
1951	15.3	363.6	15.9	536.0
1952	28.4	85.6	34.4	116.4
1953	43.3	52.5	43.1	25.3
1954	59.4	37.2	55.2	28.1
1955	100.0	68.4	100.0	81.2
1946~53		134.2		151.7
1948~53		129.0		139.8
1950~53		175.4		183.5
1946~55		118.0		132.3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 1961, p. 7.

한편 〈表 9〉에서 보는 서울消費者物價指數와 서울都賣物價指數는 1955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작성된 것이나, 解放직후~休戰期(1946~53年)의 두가지 物價의 騰貴率은 각각 134.2%와 151.7%, 政府樹立期~休戰期(1948~53年)의 騰貴率은 각각 129.0%와 139.8%이며, 韓

〈表 10〉通貨量과 貨幣發行額의 變動(1945~55)

單位：百萬圓, %

年 度	總貨幣 供給量 (3)+(4)	增加率	(1) 貨幣民間 保有量	增加率	(2) 通貨性 預 金	增加率	(3) 通貨量 (1)+(2)	增加率	(4) 貨 幣 發行額 (年度末)	增加率	(5) (4)/(3)
1945	123.1	—	84.4	—	29.9	—	114.3	—	88	—	77.2
1946	266.2	116.3	165.4	96.0	83.1	177.9	248.5	117.4	177	101.1	71.1
1947	527.9	98.3	311.8	88.5	182.7	119.9	494.5	99.0	334	88.7	67.5
1948	739.4	40.1	406.0	30.2	290.0	58.7	696.0	40.8	434	29.9	62.4
1949	1,286.1	73.9	707.0	74.1	504.0	73.8	1,211.0	74.0	751	73.0	62.0
1950	3,060.2	137.9	2,228.0	215.1	603.0	19.6	2,831.0	133.8	2,292	205.2	81.0
1951	7,861.9	156.9	5,393.0	142.1	1,911.0	216.9	7,304.0	158.0	5,579	143.4	76.4
1952	15,339.4	95.1	9,743.0	80.7	4,582.0	139.8	14,325.0	96.1	10,144	81.8	70.8
1953	32,629.2	112.7	22,334.0	129.2	7,982.0	74.2	30,316.0	111.6	23,132	128.0	76.3
1954	62,244.9	90.8	39,979.0	79.0	18,100.0	126.8	58,079.0	91.6	41,659	80.1	71.7
1955	99,764.8	60.3	58,777.0	47.0	34,746.0	92.0	93,523.0	61.0	62,418	49.8	66.7
1946~53		103.9		107.0		110.1		103.8		106.4	71.6
1948~53		102.8		111.9		97.2		102.4		110.2	71.5
1953~55		87.9		85.1		97.7		88.1		86.0	71.6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 pp.16~20에서 作成.

註：* 1945~53年 數值일.

國動亂期內(1950~53)의 騰貴率은 각각 175.4%와 183.5%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解放과 政府樹立期로부터 休戰에 이르는 期間에 누진된 惡性 인플레이션은 1950年 3月 4日에 발표된 新經濟政策 轉換으로서의 '經濟安定 15原則'에서도 가장 核心的인 과제가 되었으며 累進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阻止策으로서 評價⁽¹³⁾했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結果가 되고 말았다.

解放직후에서 動亂期 전후의 貨幣發行額에 관한 統計數值들은 명확하지 않으나⁽¹⁴⁾, 〈表 8〉 및 〈表 9〉에서 解放~休戰期의 通貨量(貨幣民間保有量+通貨性預金)과 貨幣發行額의 對前年增加率의 變動을 살펴 보면 여기에는 대체로 〈表 8〉의 資料에 의한 增加率이 〈表 10〉의 資料에 의한 增加率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¹⁵⁾

(13) 韓國產業銀行, 앞의 책, p.413 참조.

(14) 本稿의 〈表 8〉(公報處 統計局, 『大韓民國統計年鑑』, 1952)와 〈表 10〉(韓國銀行資料)의 數値는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5) 〈表 8〉과 〈表 10〉을 이용하며 貨幣發行額의 增加率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單位：%

期 間	〈表 8〉의 貨幣發行額의 增加率	〈表 10〉의 貨幣發行額의 增加率
1946~52	106.8	103.3
1948~52	126.9	106.7
1950~52	176.9	143.5

解放~休戰期(1946~53年), 政府樹立~休戰期(1948~53年)와 休戰以後~復舊整備期(1953~55年)의 貨幣民間保有量의 增加率을 <表 10>에서 살펴 보면, 各 期別로 107.0%, 111.9%, 85.1%이며 通貨量增加率은 각각 110.1%, 97.2%, 97.7%이며 또한 貨幣發行額의 增加率은 106.4%, 110.2%, 86.0%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가지의 특징으로서 1946~53年間의 貨幣와 通貨量의 增加率이 모두 최고수준이며 또한 이 時期의 貨幣發行額比重도 모두 71~72% 수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解放직후에 인플레이션이 加速化된 原因은 여러가지로 들 수 있겠으나, 이 중에서도 중요한 原因의 하나는 그 당시의 金融無政府狀態 아래서 日帝에 의해 감행된 朝鮮銀行券의 남발이었다. ⁽¹⁶⁾ 즉, 1945年 8月 14日 現在の 朝鮮銀行券의 發行額은 48百萬圓에서 1945年 9月 末日 現在の 87百萬圓이라는 거의 81.3%의 대규모의 南발이었다. 이같은 南발은 敗戰 직후의 日本銀行券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¹⁷⁾

이와같은 그 당시의 果進的인플레이션의 加速化는 다시 物價와 通貨에 대한 惡循環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通貨價値의 급격한 低落을 초래하여 결국 換物心理의 새로운 經濟的 局面을 야기시켰다. ⁽¹⁸⁾

<表 11> 貨幣供給量과 都賣物價의 變動(1945~54) 單位: 百萬圓, %

	貨幣供給量		서울都賣物價	
	金額	增加率	指數 (1947=100)	增加率
1945	11,828	—	11.8	—
1946	27,194	129.9	74.4	530.5
1947	53,647	97.3	142.4	91.4
1948	73,671	37.3	185.0	29.9
1949	130,617	77.3	289.9	56.7
1950	290,462	122.4	831.1	186.7
1951	784,806	170.2	2,599.2	212.7
1952	1,564,117	99.3	5,256.8	102.2
1953	3,489,600	123.1	6,466.1	24.9
1954	6,687,100	91.6	10,036.7	55.2

資料: A.I. Bloomfield and J.P. Jensen, *Banking Reform in South Korea*,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March, 1951, p. 29; C.D. Campbell and G. Tullock, "Some Little-Understood Aspects of Korea's Monetary and Fiscal Syste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LVII, June 1957, No. 3. p. 340. Table I.

註: 1953年 이전의 單位는 百萬圓, 1953~54年은 10,000圓임. 增加率은 對前年增加率임.

(16) 韓國產業銀行, 앞의 책, p. 412.

(17)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p. 1-35.

日本の 경우는 1945年 8月 15日 現在 302억圓에서 8月 30日 現在 423억圓, 즉 40.1%의 南발이 있었다. 土屋·平山, 『日本經濟』, 1968. p. 295 참조.

(18) 1950~54年의 6.25動亂 이후 만 4年間의 韓國銀行券發行을 要因別로 살펴보면 財政資金 38,618

〈表 12〉 6.25動亂으로 인한 施設被害

單位：100萬달러, %

項 目	1950年 11月末 現 在 (A)	構 成 比	1951年 11月末 現 在 (B)	構 成 比	對前年增加率 (B)/(A)
產 業 關 係	295	12.2	354	11.7	20.0
公 共 施 設	432	17.8	475	15.6	10.0
教 育 施 設	169	7.0	186	6.1	10.1
醫 療 施 設	310	12.8	372	12.3	20.0
遞 信 施 設	24	0.9	36	1.2	50.0
交 通 施 設	193	8.0	232	7.7	20.2
一 般 家 屋	341	14.1	512	16.9	50.2
國防關係(兵器除外)	79	3.3	102	3.4	29.1
保 健 關 係	211	8.7	271	8.9	28.4
기 타	307	15.2	492	16.2	34.1
合 計	2,421	100.0	3,032	100.0	

資料：韓國銀行, 『物價總覽』, 1961, p. 10.

〈表 13〉 6.25動亂으로 인한 施設被害

單位：千달러, %

項 目	1951年 11月末 現在	構 成 比	備 考
一 般 工 業 施 設	115,261	32.5	69.5
鑛 業 施 設	59,425	16.8	
發 電 所 施 設	71,523	20.2	
漁 業 施 設	30,855	8.7	30.5
農 業 行 政 施 設	7,262	2.1	
精米 및 貯藏 施 設	21,551	6.1	
農地 改良 施 設	23,877	6.7	
林 業 施 設	16,306	4.6	
家 畜 屠 殺 場 施 設	8,000	2.3	
合 計	354,000		

資料：韓國銀行, 『物價總覽』, 1961, p. 10.

끝으로 6.25動亂으로 인한 施設被害狀況을 살펴보면, 주로 公共施設 및 家屋, 産業施設, 醫療施設, 保健 및 交通施設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主要 施設被害의 1950年과 1951年の 對前年增加率을 보면 動亂으로 인하여 2個年間に 家屋 및 通信施設은 50%, 國防 및 保健關係는 28~29%, 産業·交通 및 醫療施設은 20% 이상의 被害額의 증가를 가져온 셈이다.

한편 産業關係施設의 被害를 다시 細部的으로 보면 역시 工業施設과 發展施設 그리고 鑛業施設이 각각 32.6%, 20.2%, 16.8%로 나타난다. 이것은 全體産業施設의 거의 7%에 이

百千圓, 유엔軍 資金 22,226百萬圓, 韓國銀行信用 2,410百萬圓, 其他部門 1,288百萬圓과 같으며 이 중에서도 財政資金, 유엔軍資金, 韓國銀行信用의 巨額한 配當 등이 중요한 要因들이었다.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5, pp. 1-35.

르며, 이것이 곧 生産萎縮의 實狀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III. 韓國經濟의 成長要因

1. 實質經濟成長의 考察

經濟成長과 發展은 몇가지의 단조로운 要因의 結合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經濟成長은 時代的인 背景에 따르는 社會·文化的 그리고 制度的·經濟的 環境과 直結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중에서도 經濟的 環境 그 자체는 國內의 總體的 側面과 構造的 側面, 그리고 外的인 國際的 側面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각 측면은 모두 投資·勞動力의 供給, 技術進步 등과 밀접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다.⁽²⁰⁾

우리는 여기서 經濟成長에 관한 古典理論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으나, 經濟成長過程 그것은 集中的인 技術進步의 도입에 의한 生産性的 向上과 勞動力의 절감, 그리고 雇傭力의 吸收을 위한 3次産業의 比重을 높여가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²¹⁾

〈表 14〉 成長率의 循環變動

(1) 經常價格基準에 의한 循環變動	GNP _t /GNP _{t-1} 에 의한 年平均 成長率	△GNP/GNP에 의한 年平均 成長率
1954~58 (5年)	35.5	24.2
1958~62 (5年)	12.8	11.0
1962~65 (4年)	29.3	21.9
1965~72 (8年)	24.0	19.4
1972~77 (6年)	31.6	23.9
1977~80 (4年)	27.6	21.5
(2)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循環變動		
1954~57 (4年)	4.0	3.7
1957~60 (4年)	4.5	4.3
1960~65 (6年)	5.6	5.2
1965~72 (8年)	9.1	8.3
1972~75 (4年)	9.0	8.2
1975~80 (6年)	7.5	6.6

資料 : 本稿 〈表 1〉.

(19) 사실 3年間の 韓國動亂期에는 거의 30억달러에 이르는 生産施設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이 규모는 1950年代初의 國民總生産의 2배에 이르고 있다. 鈴木長年編, 『アジアの經濟發展と輸出指向工業化』, アジア經濟研究所, 1974, p. 59.

(20)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1966, pp. 4-5.

(21) S. Kuznets, *Economic Change*, 1954, p. 258.

〈表 15〉經濟成長率의 變動(1954~80)

年 度	經 常 市 場 價 格				1975年 不 變 市 場 價 格			
	(1) △GNP/ 實質 GNP 成長 率	3 個 年 移 動 平 均 值	(2) GNP _t / GNP _{t-1}	3 個 年 移 動 平 均 值	(3) △GNP/ 實質 GNP 成長 率	3 個 年 移 動 平 均 值	(4) GNP _t / GNP _{t-1}	3 個 年 移 動 平 均 值
1954	27.7	—	38.3	—	4.9	—	5.1	—
1955	42.2	31.4	72.9	47.8	4.3	2.6	4.5	2.7
1956	24.4	29.9	32.3	45.1	-1.4	3.3	-1.4	3.6
1957	23.1	17.1	30.1	22.1	7.0	3.6	7.6	3.9
1958	3.7	10.9	3.9	13.4	5.2	5.3	5.5	5.6
1959	5.9	6.9	6.3	7.6	3.7	3.3	3.6	3.5
1960	11.2	11.3	12.6	13.0	1.1	3.4	1.1	3.5
1961	16.7	15.1	20.1	17.9	5.3	2.9	5.6	3.0
1962	17.3	21.1	20.5	27.5	2.2	5.3	2.2	5.6
1963	29.3	25.5	41.4	34.9	8.3	6.4	9.1	7.0
1964	29.8	23.4	42.4	32.1	8.7	7.5	9.6	8.2
1965	11.1	21.1	12.5	27.9	5.5	8.5	5.8	9.4
1966	22.3	17.5	28.7	21.6	11.3	7.7	12.7	8.4
1967	19.1	21.3	23.5	27.1	6.2	9.2	6.6	10.2
1968	22.5	21.6	29.0	27.6	10.1	9.5	11.3	10.6
1969	23.5	21.8	30.4	28.0	12.1	9.7	13.8	10.9
1970	19.7	20.5	24.5	25.9	7.1	9.3	7.6	10.3
1971	18.5	18.8	22.8	23.2	8.6	7.1	9.4	7.6
1972	18.2	19.9	22.3	25.0	5.5	9.0	5.8	10.0
1973	23.1	23.3	30.0	30.8	13.0	8.6	14.9	9.6
1974	28.6	25.6	40.0	34.5	7.4	9.3	8.0	10.0
1975	25.1	26.6	33.6	36.4	6.7	9.0	7.1	10.1
1976	26.2	24.4	35.5	32.4	13.2	9.7	15.1	10.8
1977	22.0	24.6	28.2	32.8	9.3	11.0	10.3	12.3
1978	25.7	23.0	34.6	29.9	10.4	8.6	11.6	9.4
1979	21.2	21.3	26.9	27.3	6.0	3.5	6.4	7.9
1980	17.0	—	20.5	—	-6.0	—	-5.4	—

資料：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5~79.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8, 1980.

註：△GNP/GNP 表示의 實質 GNP成長率과 GNP_t/GNP_{t-1}表示의 GNP成長率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난다.

本章은 주로 韓國動亂 이후의 經濟復興期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長期的인 經濟成長過程에 관한 考察이다. 〈表 14〉~〈表 15〉에 의해 1954~80年間의 經濟成長의 長期的인 變動過程을 살펴 본다면, 1954~60年에 3.7%, 1961~70年에 8.4%, 1971~80年에 8.3%의 높

A. Mured, "Net Investment and Industrial Progress," ed. by K.K. Kurihara, *Post-Keynesian Economics*, 1955, pp.237-238.

〈表 16〉 觀測期間別 經濟成長率(1954~80)

觀測期間	經常市場價格		1975年 不變市場價格	
	(1) △GNP/GNP 實質 GNP成長率	(2) GNP _t /GNP _{t-1}	(3) △GNP/GNP 實質 GNP成長率	(4) GNP _t /GNP _{t-1}
1954~80	21.3	28.3	6.5	7.2
1954~60	19.7	30.9	3.5	3.7
1954~55	35.0	55.6	4.6	4.8
1956~60	13.7	17.0	3.1	3.3
1961~70	21.1	27.3	7.7	8.4
1961~65	20.8	27.5	6.0	6.5
1966~70	21.4	27.2	9.4	10.4
1971~80	32.6	29.4	7.4	8.3
1971~75	22.7	29.7	8.2	9.0
1976~80	22.4	29.1	6.6	7.6
經濟計劃期間				
1962~80	22.1	28.8	7.7	8.5
1次: 1962~66	22.0	29.0	7.2	7.9
2次: 1967~71	20.6	26.0	8.8	9.7
3次: 1972~76	24.2	32.3	9.2	10.2
4次: 1977~80	21.5	27.6	4.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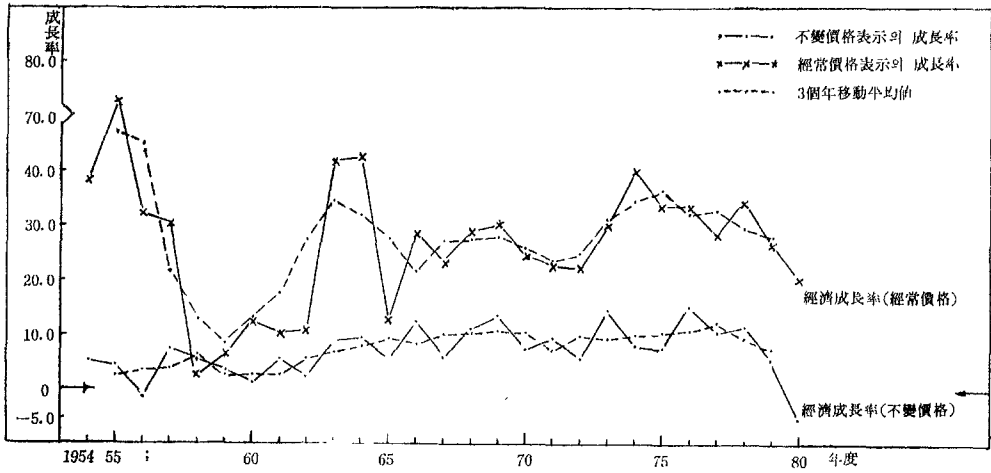
資料: 本稿 〈表 15〉.

은 成長率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이를 각 5個年間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61~65年 6.5%, 66~70年 10.4%, 71~75年 9.0%, 76~80年 7.5%와 같이 1960年代前半에서 70年代後半으로 옮겨 올수록 높은 成長率로 나타난다. 經濟計劃期間別의 經濟成長을 살펴보면 4次期間에는 1980年の 不況으로 인하여 5.7%로 크게 低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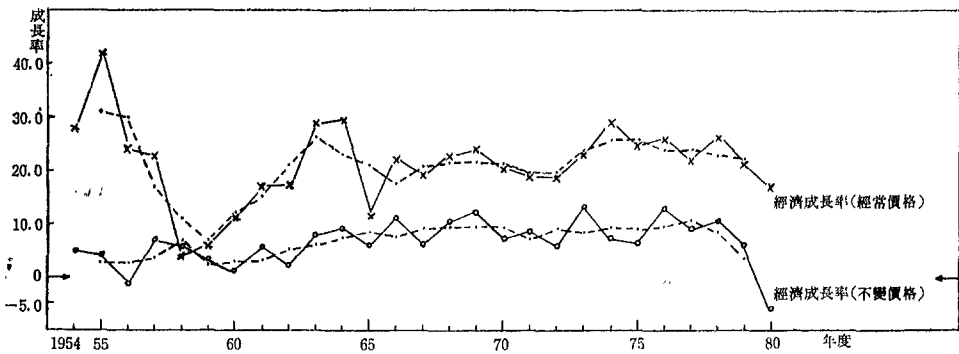
不變市場價格基準에 의한 實質 GNP成長率(△GNP/GNP)을 보면, 50年代에 3.5%, 60年代에 7.7%, 70年代에 7.4%이며 1954~80年の 20年間の 年平均成長率은 6.5%로 기록된다. 또한 1次~4次計劃期間(1962~80年)에는 年平均 7.7%라는 높은 成長率을 달성하였다.

經濟成長의 推移過程을 經常市場價格과 不變市場價格의 基準에 의한 2종류의 成長率, 즉 2가지의 基準에 의한 △GNP/GNP와 GNP_t/GNP_{t-1}의 成長率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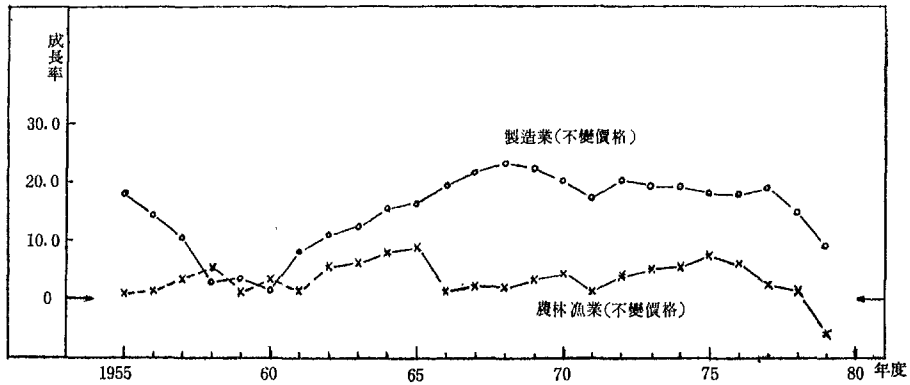
먼저 經常價格基準에 의한 GNP成長率(GNP_t/GNP_{t-1})과 實質 GNP成長率(△GNP/GNP)의 變動을 보면, 대체로 6개의 循環變動, 즉 1954~58年, 1958~62年, 1962~65年, 1965~72年, 1972~77年, 그리고 1977~80年과 같이 나타난다. 한편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2종류의 成長率은 1954~57年, 1957~60年, 1960~65年, 1965~70年, 1972~75年, 1975~80年과 같은 循環幅을 나타낸다.



〈그림 1〉 經濟成長率(GNP_t/GNP_{t-1})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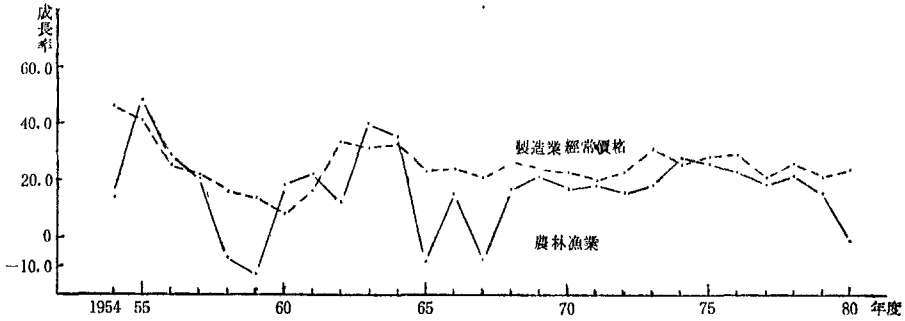


〈그림 2〉 經濟成長率($\Delta GNP/GNP$)의 推移



〈그림 3〉 農林漁業 및 製造業의 成長率(3個年移動平均)

이 경우 2종류의 價格基準에 의한 經濟成長率의 循環變動幅은 4~8個年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循環變動을 1次~4次計劃期間에 비교해 보면, 經濟成長率의 循



〈그림 4〉 農·工業部門의 實質生産의 成長率(ΔGNP/GNP)

環變動幅이 2個年 先行(1972~75年 除外)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表 17〉의 1975年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産業別 成長率을 본다면, 먼저 自然的 條件에 의존되는 農林漁業部門의 成長率은 대체로 不均衡的인 成長經路를 밟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특히 이 1次産業은 50年代에서 60年代의 前半期에 마이너스 成長率을 기록한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60年代後半에서 70年代前半期에 다소 安定的인 成長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年代別의 年平均成長率을 보면, 50年代 2.4%, 60年代 4.6%, 70年代 2.9%이며, 1~4次經濟計劃期間(1962~80)에는 3.3%의 低調한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24)

2次産業인 鑛工業部門 및 製造業部門은 그간의 韓國經濟成長의 先導的인 役割을 담당해 왔다. 이 2個産業部門은 각각 50年代 12.1%와 10.4%, 60年代 15.9%와 17.0%, 그리고 70年代 15.1%와 15.7%의 높은 成長率을 달성했으며, 1~4次經濟計劃期間중에는 각각 16.0%와 17.0%로 기록하였다. 3次産業인 社會間接資本 및 서어비스部門은 50年代에 비교적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었으나, 60~70年代에는 주로 2次産業에 이어 9.4%와 8.0%로 높은 成長率을 가져왔다. 결국 이 같은 現象은 한마디로 生産力의 成長率이 높은 水準에서 유지될 때 그것은 勞動力의 증가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直結되는 것임을 찾아 볼 수 있다. (25)

〈그림 3〉의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製造業과 農林漁業部門의 成長率(3個年 移動平均値)을 살펴 본다면, 먼저 規模面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나, 成長率의 側面에서는 1979年의 製造業部門은 1957年의 成長率이하로 低下되었으며, 成長經路의 變動은 1955~60年, 1960~71年, 1971~79年과 같은 循環變動을 나타낸다. 農林漁業部門은 1955~61年, 1961~66年, 1966~71年, 그리고 1971~79年의 循環變動을 나타내며 1次産業部門의 成長率은 2次産業部

(22) 이 經濟成長率의 循環變動은 景氣循環變動과 거의 類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邊衡尹·金潤煥 編著, 『韓國經濟論』, 1977, pp.167-168, 第5章 참조.

(24) 李賢宰, 『經濟成長과 國民所得構造變動』, 1972, pp.10-12.

(25) K. Ohkawa and H. Rosovsky,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Recent Japanese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3, p.502.

門의 그것에 비해 매우 不規則的이며 또한 짧은 循環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⁶⁾

한편 <表 17>의 經常價格基準에 의한 比重이 큰 主要產業別 實質成長率($\Delta GNP_t / GNP_t$)을 살펴 본다면, 農林漁業部門은 50年代 10.9%, 60年代 17.8%, 70年代 18.7%이다. 여기서 50年代後半과 60年代前半의 成長率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이들의 成長循環의 變動은 거의 5個年間の 폭으로 나타나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製造業과 建設業部門의 年代別 成長率은 거의 같은 傾向으로 나타난다. 즉 製造業部門은 50年代 17.1%, 60年代 25.6%, 70年代 25.2%이며, 建設業部門은 50年代 17.0%, 60年代

<表 17> 產業別成長率(GNP_t / GNP_{t-1})(1954~80)

(1975年 不變市場價格), %

年 度	農林漁業	3 個年 移 動 平均値	鎭工業	3 個年 移 動 平均値	製造業	3 個年 移 動 平均値	社 會 間接資本 塔 基	3 個年 移 動 平均値	GNP deflator (1975=100)
1954	8.0	—	11.5	—	18.1	—	2.0	—	2.9
1955	1.5	0.9	19.9	15.0	21.3	18.2	5.9	3.5	4.7
1956	-6.9	1.3	13.6	14.5	15.2	14.5	2.6	4.6	6.3
1957	9.4	3.3	9.9	10.9	7.1	10.9	5.3	3.6	7.7
1958	7.3	5.5	9.1	9.7	10.3	3.3	3.0	5.2	7.6
1959	-0.3	1.6	10.0	10.0	-7.6	3.6	7.2	4.2	7.7
1960	-2.1	3.3	10.9	8.4	8.2	1.5	2.5	3.1	8.6
1961	12.2	1.4	4.4	9.6	4.0	8.0	-0.5	3.5	9.8
1962	-6.0	5.2	13.4	10.7	11.7	10.6	8.6	5.2	11.6
1963	9.5	6.4	14.2	12.7	16.1	12.6	7.5	6.5	15.0
1964	15.6	8.0	10.5	14.3	9.9	15.5	3.5	6.9	19.5
1965	-1.0	8.7	18.3	14.7	20.5	15.9	9.7	8.7	20.7
1966	11.6	1.6	15.3	17.9	17.3	19.8	13.0	12.4	23.7
1967	5.9	2.3	20.2	19.6	21.6	22.0	14.6	14.3	27.4
1968	1.3	2.0	23.4	20.9	27.2	23.5	15.3	14.7	31.8
1969	10.5	3.5	19.2	20.7	21.6	22.9	14.2	12.5	36.5
1970	-1.4	4.3	19.6	18.7	19.9	20.1	8.1	10.7	42.1
1971	3.7	1.4	17.3	16.6	18.8	17.6	9.8	7.6	47.4
1972	2.0	4.0	12.9	19.6	14.0	20.7	5.0	9.5	54.8
1973	6.3	5.0	28.6	18.9	29.2	19.7	13.6	7.9	62.1
1974	6.7	6.1	15.2	18.8	15.8	19.2	5.1	7.9	80.8
1975	5.3	7.6	12.6	16.4	12.6	17.0	5.1	8.0	100.0
1976	10.7	6.0	21.5	16.1	22.6	16.5	13.7	10.2	118.5
1977	2.1	2.9	14.3	18.6	14.4	19.2	11.9	13.1	136.9
1978	-4.0	1.6	20.0	14.6	20.7	19.0	13.6	9.9	165.1
1979	6.7	-6.4	9.4	9.4	9.8	9.8	4.1	5.2	197.0
1980	-22.0	—	-1.2	—	-1.2	—	-2.2	—	251.6

(26) 大川一司·H·롄프스키共著, 『日本の經濟成長』, 1973, p. 43 참조.

觀測期間					
1954~60	2.4	12.1	10.4	4.1	6.5
1954~55	4.8	15.7	19.7	4.0	3.8
1956~60	1.5	10.7	6.6	4.1	7.6
1961~70	4.6	15.9	17.0	9.4	23.8
1961~65	6.1	12.2	12.4	5.8	15.3
1966~70	3.2	19.5	21.5	13.0	32.3
1971~80	2.9	15.1	15.7	8.0	121.4
1971~75	4.8	17.3	18.1	7.7	69.0
1976~80	0.9	12.8	13.3	8.2	173.8
經濟計劃期間					
1962~80	3.3	16.0	17.0	8.7	75.9
1次：1962~66	5.9	14.3	15.1	8.5	18.1
2次：1967~71	1.6	19.9	21.8	12.7	37.0
3次：1972~76	6.2	18.2	18.8	8.5	83.2
4次：1977~80	-4.3	10.6	10.9	6.9	187.7

資料：經濟企劃院，『主要業務指標』，1979，pp. 12-13.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1972，1980.

韓國銀行，『1980年國民總生產暫定推定』，1980年12月，p. 12.

〈表 18〉 主要產業部門別 實質成長率(1954~80)

(經常市場價格基準)，%

年 度	農林漁業部門	製造業部門	建設業部門	都賣・飲食 宿泊業部門	社會・個人 서비스部門
1954~60	10.9	17.1	17.0	13.7	18.9
1954~55	31.2	42.9	45.4	36.2	51.4
1956~60	9.4	17.0	15.9	12.9	17.2
1961~70	17.8	25.6	26.1	22.8	20.6
1961~65	19.8	27.4	24.2	23.0	15.6
1966~70	15.7	23.7	28.1	22.5	25.7
1971~80	18.7	25.2	26.1	22.1	22.9
1971~75	21.6	26.3	21.2	23.7	21.2
1976~80	15.9	24.1	30.9	20.4	24.6
經濟計劃期間					
1962~80	18.1	25.9	26.6	22.9	22.3
1次：1962~66	18.5	29.2	26.6	25.6	18.4
2次：1967~71	16.6	22.7	24.5	21.3	24.9
3次：1972~76	22.3	28.2	24.5	24.3	22.5
4次：1977~80	14.1	22.8	32.2	19.9	23.6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1980，pp. 262-263.

韓國銀行，『韓國의 國民所得』，1978，pp. 206-207.

韓國銀行，『1980年國民總生產暫定推定』，1980. 12.

註：實質生產成長率 = $\Delta \text{GNP} / \text{GNP}$.

26.1%, 70年代 26.1%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都賣·飲食·宿泊業部門은 50年代 13.7%, 60年代 22.8%, 70年代 22.1%이며, 社會·個人 서어비스業部門은 50年代 18.9%, 60年代 20.6%, 70年代 22.9%와 같이 높은 成長率을 나타낸다.

다음은 <表 18>에 의하여 主要國의 經濟成長率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50年代의 比較時點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英國의 2.6%, 日本의 8.0%이나, 우리나라는 3.7%(1954~60)의 낮은 成長率로 나타낸다. 그러나 60年代의 우리나라 經濟成長率은 日本의 10.8%에 이어 7.8%이며, 1970~75년에는 日本의 5.4%보다도 높은 8.8%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다. 특히 世界의 에너지波動 이후인 1979~78년의 우리나라의 平均成長率은 10.8%이며 日本은 4.7%이었다.

이같은 經濟成長率의 단순한 國際比較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으나⁽²⁷⁾ 일단 數值上으로는 動亂이후의 60~70年代의 韓國經濟成長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1960~80年(21個年)間의 年平均成長率은 8.0%, 1960~79年의 그것은 8.7%이며, 이 사실은 外形上으로는 1954~79年間의 우리나라의 年平均成長率은 西獨보다도 훨씬 높으며, 日本과는 거의 비슷한 成長率을 기록한다.

그러나, 1970~79年間의 우리나라와 自由中國 및 싱가포르의 年平均經濟成長率을 비교해 본다면, 각각 9.6%, 10.1%와 9.5%이며, 이와 동시에 消費者物價의 騰貴率을 감안한다면, 自由中國과 싱가포르의 경우가 보다 安定된 高度成長經路를 밟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²⁸⁾ 經濟成長은 人口 1人當의 生産量이 持續적으로 上昇하는 것이며, 또한 人口變動에 의해 광범한 構造的 變化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生産活動과 資源利用에 의해 產業構造가 農業에서 非農業으로 移行되어 가는 工業化的 過程이다.⁽²⁹⁾

우리나라의 人口增加率과 1人當 GNP成長率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人口增加率

(27) S. Kuznets, *Economic Change*, 1954, pp.145-146 참조.

(28) 이들 國家의 成長率과 物價(消費者) 騰貴率(1970~79)은 아래와 같다.

國 別	平均經濟成長率	年平均物價騰貴率
韓 國	9.6	14.8
自由中國	10.1	8.9
싱가포르	9.5	6.6
홍콩	10.5	5.5
日本	6.1	9.1
美國	2.9	7.1

資料 :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統計年報』, 1980, pp. 2-5.

(29) S.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1966, pp.18-19.

〈表 19〉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國 別	1950~60	1960~70	1970~75	1975~79	備 考 (1975~78)
韓 國	3.7(1954~60)	7.8	8.8	10.1	10.8
日 本	8.0 ⁽²⁾	10.8	5.4	5.0	4.7
英 國	2.6(1956~60)	2.8	2.0	1.7 ⁽⁵⁾	—
西 獨	7.7 ⁽¹⁾	5.5	2.7	2.8	2.3
프 랑 스	4.4 ⁽¹⁾	5.7 ⁽⁴⁾	4.3	3.0 ⁽⁵⁾	—
이 탈 리 아	5.5 ⁽¹⁾	5.5 ⁽⁴⁾	2.9	1.7 ⁽⁵⁾	—
벨 기 에	3.1 ⁽³⁾	5.0	3.5	2.1	—
덴 마 아 크	3.2	4.8	2.1	2.4 ⁽⁵⁾	—
스 위 스	4.0 ⁽¹⁾	4.2	2.1	-1.1	—
스 웨 덴	3.4	4.6	2.3	-1.2 ⁽⁵⁾	—
美 國	3.2	3.9	2.1	3.3	3.6
카 나 다	4.6	5.2	4.6	3.0	3.1
오 스트 리 아	3.9	5.2	3.2	2.6 ⁽⁵⁾	—
네 델 란 드	4.9 ⁽¹⁾	5.3	3.7	2.1	—

資料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77, 1979.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 447.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年報』, 1980. 9, pp. 328-329.

註 : (1) : 1951~60. (2) : 1952~60. (3) : 1953~60. (4) : 1960~75는 新SNA方式에 의한 國內總生產의 成長率. (5) : 1975~78.

〈表 20〉 人口增加率과 1人當 GNP成長率(1954~80)

%

觀 測 期 間	人 口 增 加 率	GNP成長率(不變價格)	1人當 GNP成長率 (不變價格)
1954~60	3.3	3.7	0.8
1954~55	2.9	4.8	1.9
1956~60	3.5	3.3	0.4
1961~70	2.5	8.4	5.7
1961~65	2.7	6.5	3.6
1966~70	2.3	10.4	7.9
1971~80	1.7	8.3	6.8
1971~75	1.8	9.0	7.1
1976~80	1.6	7.5	6.5
經濟計劃期間			
1962~80	2.0	8.3	6.4
1次 : 1962~66	2.6	7.8	5.0
2次 : 1967~71	2.2	9.7	7.3
3次 : 1972~76	1.7	10.1	8.3
4次 : 1977~80	1.6	5.7	4.8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p. 4-5.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78.

註 : 1954~61年과 1979~80年の 1人當 GNP成長率은 資料가 未備하여 GNP成長率-人口成長率= 1人當 GNP成長率에 의거한 것임.

은 1950年代의 3.3%에서 1960年代의 2.5%, 1970年代의 1.7%와 같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人當의 GNP成長率(1975年 不變價格基準)은 50年代에 0.8%, 60年代에 5.7%, 70年代에 6.8%와 같이 증가하였다. 특히 1~4次經濟計劃期間 중의 年平均人口增加率は 2.0%로 減少되고 1人當의 GNP成長率は 6.4%로 증가하였다.

한편 經濟成長에 대한 產業別의 寄與率을 <表 20>에 의하여 살펴 본다면, 1954~60年(1956年除外)에 1次產業部門은 20.3%, 2次產業部門은 30.1%, 3次產業部門은 11.0%이며, 60年代의 年平均寄與率は 1~3次產業部門에서 각각 9.6%, 32.0%, 53.2%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60年代이후의 각 5個年間의 寄與率을 보면, 1次產業部門은 1961~65년에 15.6%, 1966~70년에 4.5%, 1971~75년에 11.8%, 1976~79년에 5.9%로 나타나며, 1~4次經濟計劃期間 중의 年平均寄與率は 4.7%와 같이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 2次產業部門의 경우는 1961~65년에 7.4%, 1966~70년에 31.6%, 1971~75년에 45.7%, 그리고 1976~79년에 46.1%이며, 1~4次經濟計劃期間중의 年平均寄與率は 36.0%로서 비교적 높은 水準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3次產業部門인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部門의 경우는 1961~65년에 57.3%, 1966~70년에 64.1%, 1971~75년에 42.5%, 그리고 1976~79년에 48.0%이며 1~4次計劃期間중의 年平均寄與率は 55.7%로 나타난다.

<表 21> 經濟成長의 寄與率(1954~79)

不變價格基準, %

觀 測 期 間	農 林 漁 業	鎭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1954~60 ^(*)	20.3	30.1	11.0
1961~79	9.6	32.0	53.2
1961~70	10.0	19.5	60.7
1961~65	15.6	7.4	57.3
1966~70	4.5	31.6	64.1
1971~79	9.2	45.8	45.0
1971~75	11.8	45.7	42.5
1976~79	5.9	46.1	48.0
經濟計劃期間			
1962~79	4.7	36.0	55.7
1次: 1962~66	4.1	28.6	67.4
2次: 1967~71	-1.9	36.1	65.8
3次: 1972~76	12.8	46.6	40.6
4次: 1977~79	3.9	32.8	49.0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 6.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9, pp. 276-277.

註: 1956年은 除外되어 있음.

이같이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寄與率은 時期別 및 經濟計劃期間別로 살펴볼 때 2次産業部門을 주축으로 한 高度成長에 의해 1次産業部門의 成長寄與率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2. 實質經濟成長의 主要內容

지금까지 60~70年代의 韓國經濟의 高度成長過程을 살펴 보았다. <表 21>은 長期間의 實質經濟成長의 內容을 파악하기 위한 10個의 主要項目의 變動에 관한 結果이다.

(1) 實質消費支出의 成長率

工業化過程에서의 消費構造와 生産構造는 製品 및 商品供給構成의 變化와 所得水準의 上昇에 따른 消費需要構造의 變化에 밀접한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즉 供給構造가 消費構造에 어느 정도로 適合되어 가는가에 의해서 物價의 安定度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供給構造의 變化가 所得水準의 上昇에 의한 消費構造의 變化에 均合되지 않을 경우에 經濟成長率은 減速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³⁰⁾

1950年代의 需要項目別의 成長率에 관해서는 資料가 未備하여 精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實質表示의 政府消費支出은 民間消費支出에 비해 크게 增加하였으며, 50年代 후반은 休戰直後의 經濟再建期로서 이에 대한 政府의 消費支出은 22.5%의 史上最高水準에 도달한 바 있었다.

高度成長期の 所得水準의 上昇과 供給構造의 變化로 인해, 60年代와 70年代의 實質民間消費支出의 增加率은 각각 6.4%와 9.9%, 그리고 實質政府消費支出의 增加率은 9.6%와 13.4%, 70年代의 民間 및 政府의 年平均成長率은 각각 3.2%, 2.5%와 같이 上昇하였다.⁽³¹⁾

1~4次計劃期間에는 2次와 3次計劃期間인 1967~71年과 1972~76年의 年平均成長率은 民間消費支出이 12.0%와 11.5%, 政府消費支出이 15.0%와 15.7%로 나타나며, 이것은 주로 高度成長期에 대응한 民間家計의 消費支出과 行政府의 消費支出의 增加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4次計劃期에는 70年代 후반에 경험한 에너지波動과 政治的 與件變動으로 인한 마이너스成長이 民間消費支出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결국 1次計劃期間의 9.4%이하의 8.6% 수

(30) R. Ferbe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No. 1. March 1963, pp. 32-33; 拙稿, 「消費理論의 計量的 研究에 관한 反省과 展望」, 『雲巖李相球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79, pp. 2-3.

(31) 年代別 消費函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拙稿, 「總體的 家計消費構造와 그 變動形態」, 서울大學校, 『經營論集』, XV. No. 2. 1981, pp. 46-47.

(1953~76): $C/P = 1.3844 + 0.9029 Y/P$

(90.7910)

$R^2 = 0.9973$, $D.W. = 1.8246$, $S.E.R. = 0.9473$,

(1961~76): $C/P = 2.3571 + 0.8842 Y/P$

(67.9323)

$R^2 = 0.9970$, $D.W. = 2.4390$, $S.E.R. = 0.9688$.

準에 머물렀다. 그러나 4次計劃期の 政府消費支出의 增加率은 2次 및 3次計劃期에 비해 3.0% 水準정도로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12.7% 水準에 놓여 있다.

(2) 實質固定資本形成과 實質生産者耐久施設投資의 成長率

다음은 宅住이외의 實質固定資本形成과 實質生産者耐久施設 및 實質住宅投資에 대한 成長率의 推移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固定資本形成(=建設物購入額+生産者耐久財購入額)과 生産者耐久施設額에 대한 定義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固定資本形成의 規模는 建設物購入額⁽³²⁾+生産者耐久財購入額으로서 定義하고 있으며, 또한 生産者耐久施設額은 運輸設備+機械設備로서 정의되어 있다.

한편 美國의 경우 民間設備投資는 機械設備投資만을 의미하며, 日本의 경우 民間設備投資는 生産者耐久施設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宅住이외의 固定資本形成에 해당한다.

固定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를 중심으로 한 需要項目의 成長率은 50年代에서 60年代에 이르는 사이에 상당한 水準으로 上昇하였으나, 그 上昇傾向은 결코 順調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70年代에 와서는 크게 減少되었다. 즉 宅住이외의 實質固定資本形成, 實質生産者耐久施設과 實質住宅投資의 成長率을 年代別로 보면 50年代의 年平均成長率은 각각 11.1%, 14.1%와 14.2%이며, 60年代의 年平均成長率은 각각 19.9%, 22.5%와 15.0% 水準이며, 또한 70年代의 그것은 각각 13.4%, 11.2%와 10.8%의 水準에 놓여 있다.

여기서 全期間을 통해서 본다면, 60年代의 後半期(1966~70年)에 이들 3가지의 項目의 成長率이 가장 높은 水準에 놓여 있으며, 이것은 經濟成長率(1975年 不變價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6~70年 平均成長率이 10.4%의 高度成長의 내용을 立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實質住宅投資는 60年代後半의 成長率인 27.5%의 水準에 미치지 못했으나, 70年代의 年平均成長率은 17.8%이며, 이것은 住宅難에 대한 政府 및 民間의 住宅投資가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4次經濟計劃期間에서 살펴 본다면, 1次計劃期間의 實質固定資本形成과 生産者耐久施設投資는 年平均 23.8%와 33.0%와 같이 높은 成長率을 유지하였으나, 2~4次計劃期間에는 매우 低調한 水準에 머물렀다. 또한 住宅投資의 成長率은 2次와 4次計劃期間에 각각 21.6%와 21.5%의 높은 水準에 있었으며, 이 사실은 60年代後半 이후의 住宅投資에 대한 과열現象의 始發點이 되었다.

(32) 建設物購入額=[國內總建設工事額-建物修繕工事額 및 國防建設工事額, 軍納建設工事額]+建設物の 取得·去來上에서 발생되는 모든 附帶費.

〈表 22〉主要需要項目別 實質成長率(1954~80)*

‡ (經常市場價格基準), (%)

觀測期間	(1)	(2)	(3)	(4)	(5)	(6)	(7)	(8)	(9)	(10)
	民間消費支出	政府消費支出	住宅의 固定資本形成	生産者耐久施設	住宅投資	實質輸出 (經常價格基準)	實質輸入 (不變價格基準)	實質輸出 (不變價格基準)	實質輸入 (不變價格基準)	
1954~60	4.0	22.5	11.1	14.1	14.2	-12.0	-16.0	—	—	4.0
1954~55	0.4	5.6	28.7	31.0	28.6	-56.0	-34.2	—	—	5.9
1956~60	5.4	29.3	4.1	7.3	8.5	5.6	-8.7	—	—	3.2
1961~70	6.4	9.9	19.9	22.5	15.0	23.4	9.7	37.1**	25.0**	8.5
1961~65	9.7	1.1	16.8	15.7	2.5	19.9	-5.7	41.2***	12.5***	6.5
1966~70	12.8	18.7	22.9	29.4	27.5	26.8	25.0	33.9	35.1	10.4
1971~80	9.6	13.4	11.2	10.8	17.8	17.6	9.6	24.1	14.2	8.3
1971~75	10.6	11.2	10.0	13.5	17.8	24.8	11.7	31.9	11.9	9.0
1976~80	8.6	15.5	12.4	8.1	17.7	10.3	7.6	16.2	16.5	7.6
經濟計劃期間										
1次:1962~66	9.4	5.0	23.8	33.0	13.3	24.2	6.5	38.6	18.7	1.6
2次:1967~71	12.0	15.0	11.6	10.6	21.6	24.1	18.8	33.8	25.8	9.7
3次:1972~76	11.5	15.7	11.7	13.4	13.9	28.4	11.0	32.7	12.7	10.1
4次:1977~80	8.6	12.7	13.3	8.1	21.5	4.1	7.6	10.3	13.6	5.9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2, 1980.

韓國銀行, 『1980年國民總生產暫定推計』, 1980年 12月.

註：(6) 및 (7)의 實質輸出의 成長率은 1960年이전의 輸出入單價指數의 未備로 인하여 坪의상 全國都賣物價指數(1975=100)에 의거한 것임. (8) 및 (9)의 實質輸出入은 1975年不變價格基準과 輸出入單價指數에 의거한 것임.

* 本 需要項目은 모두 實質表示임. ** 1962~70年平均. *** 1962~65年平均.

이와같이 본다면, 實質表示에 의한 住宅이외의 固定資本形成과 生産者耐久施設投資는, 1966~70年을 除外하고서는 매우 낮은 水準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設備投資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實質輸出入의 成長率

經常價格基準에 의한 實質輸入의 成長率을 살펴 본다면, 50年代는 軍事援助에 의한 一般輸出入의 減少, 즉 實質輸出入은 각각 -12.0%와 -16.0%와 같은 마이너스의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0年代의 年平均實質輸出入의 成長率은 각각 23.4%와 9.7%에서 70年代에는 각각 9.7%와 9.6%이며, 實質輸入의 成長率에서 보면 감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實質輸出의 成長率은 70年代後半 이후에 크게 鈍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現象은 經濟計劃期間에서 본다면, 實質輸出成長率은 1~3次期間에 24.2~28.4%이며, 同計劃期間의 實質輸入成長率은 크게 감소되었다.

여기서 輸出入單價指數와 1975年 不變價格基準에 의한 1~4次計劃期間의 實質輸出入의

成長率을 보면, 實質輸出은 1~3次計劃期間에 32.7~38.6%이며, 實質輸入의 成長率은 1次計劃期間 이후에 감소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위의 表에서 본 2가지 基準에 의한 實質輸出의 成長率은 1~3次計劃期間에 크게 上昇되었으며, 4次의 경우에는 매우 低調한 成長率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3. 經濟成長의 主要要因分析

本節에서는 經濟成長을 뒷받침한 主要要因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 要因分析은 資料의 制約上 충분한 究明은 불가능하나, 먼저 生産能力의 측면에서 본다면, 生産能力의 上昇은 주로 이들의 生産要素인 勞動力과 産業間의 就業構造의 變化, 資本스톡 또는 社會間接資本 및 機械設備과 技術進步의 寄與度 등에 의존되어 있다.⁽³³⁾

〈表 23〉에서 보는 각 要因에 대한 比較年度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여기서의 主要要因은 勞動力(① 就業者增加率, ② 勞動力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 ③ 教育水準別 就業者增加率), 資本量(④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의 增加率, ⑤ 機械設備의 增加率, ⑥ 生産者耐久施設의 增加率), 그리고 技術進步의 寄與度(⑦ 限界固定資本係數基準의 寄與度, ⑧ 就業者增加率基準의 寄與度, ⑨ 平均技術進步의 寄與度)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 勞動力要因

勞動力側面에서 먼저 就業者의 增加率은 1966~70年の 3.5%에서 1971~75년에 4.0%로 증가하였으나, 76~80년에는 3.0%로 감소하였다. 勞動力人口(經濟活動人口/14歲이상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66~70년에 55.7%, 1971~75년에 56.4%, 1976~80년에 57.6%와 같이 크게 上昇하고 있다.

教育水準別에서 본 就業者增加率은 한마디로 高級勞動力의 就業水準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實業高卒의 勞動力은 1966~70년에 43.1%에서 1976~78년에 56.2%, 大卒의 勞動力은 1966~70년에 51.3%에서 1976~78년에 61.8%로 크게 上昇하였으나, 專門大卒의 경우는 同期間에 63.5%에서 51.1%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은 經濟成長과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勞動力供給의 증대와 專門勞動力의 需要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雇傭증대와 勞動生産性 및 實質賃金水準을 크게 上昇시켰다.⁽³⁴⁾

(2) 資本量

資本은 여러가지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

(33) 經濟發展의 측면에서 본 成長要因은 均衡의 決定要因, 가령 技術的 條件, 投資政策, 節約條件(貯蓄性向의 문제), 競爭的 條件, 賃金契約, 資金調達, 資本財의 스톡 등으로서도 파악할 수 있다.

J. Robinson,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1962, pp. 35-36.

(34) 金光錫·朴埈卿 共著,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1979, p. 28.

비스의 增加率과 機械設備의 增加率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社會間接資本部門의 增加率은 1950年代 후반 이후에 크게 上昇하여 70年代의 年平均 8.0% 水準으로 低下되었다. 生産者耐久施設投資(運輸設備+機械設備)는 50年代 후반 이후에 17.2% 에서 60年代에 이르는 사이에 26.9% 水準으로 크게 上昇되었으나, 70年代 전반의 上昇率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機械設備의 增加率은 50年代 후반에 23.1%, 60年代 전반에 12.6%, 후반에 38.1%이며, 70年代의 전반에 11.1%, 후반에 25.0%와 같이 期間別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1~4 次計劃期間에는 각각 40.0%, 14.8%와 11.8%, 24.7%(平均 22.7%)와 같이, 비교적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그 上昇趨勢도 매우 不規則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資本投入規模의 확대에 의해서 生産能力은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이 사실은 크게 需要側面에서 본다면 設備投資에 의한 生産能力의 向上으로서 크게 寄與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設備投資當의 生産增加率은 크게 上昇하였으며, 여기에는 技術導入에 의한 製品開發과 產業間的 勞動移動 등에 의한 生産性的 向上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設備投資의 增加率의 變動幅은 生産增加率의 變動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³⁵⁾

(3) 勞動 및 資本과 技術進步의 寄與度

經濟成長에 관련된 勞動과 資本, 그리고 技術進步의 寄與度の 推定은 여러가지의 概念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다. 一般的으로 勞動所得의 附加價値에 접하는 分配率(α), 財産所得의 附加價値에 접하는 比率($1-\alpha$)이라 하면 經濟成長率은

經濟成長率(生産增加率) = (α) (勞動의 增加率) + $(1-\alpha)$ (資本增加率) + (技術進步率)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技術進步率은 資本과 勞動의 增加에 기인되지 않은 다른 기타 要因에 의한 經濟成長率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 방식은 몇가지의 엄격한 假定 아래서 成立되는 技術進步의 推定이다.

本稿에서는 다소 평범한 接近方式을 이용하여 勞動은 就業者增加率과 資本은 社會間接資本의 增加率, 그리고 技術進步率을 고찰하였다. 물론 여기서 社會間接資本의 增加率을 사용한 것은 合理的인 것은 못되나, 다른 資本의 概念으로서, 가령, 固定資本形成, 生産者耐久施設과 機械施設의 增加率 등의 指標은 이용상 適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單純式에 의한 3가지의 寄與度を 살펴 보기로 한다. 就業者增加率에 의한 勞動의 寄與도와 社會間接資本의 增加率에 의한 資本의 寄與도는 1964年 이후 크게 上昇하였으나,

(35) 本稿, <表 22> 참조.

의 變動幅은 매우 크며 또한 1979~80년에는 最低水準에 놓여 있다.

勞働과 資本의 寄與度는 60~70년에 각각 26.2%와 32.8%, 71~75년에 29.8%와 19.6%, 75~80년에 23.0%와 20.4%로 나타난다. 2次計劃期間에는 각각 27.2%와 31.2%, 3次計劃期間에는 34.4%와 21.4%, 그리고 4次計劃期間에는 16.8%와 17.0%에 低下하는 傾向으로 나타난다. 技術進步의 寄與度는 60年代 후반에 41.0%, 70年代에는 53.6%로서 經濟成長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度는 크게 上昇하였다.⁽³⁶⁾

이번에는 經濟成長率에 대한 限界固定資本係數와 就業者增加率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限界固定資本係數/GNP成長率)과 (就業者增加率/GNP成長率)의 係數는 전자는 50年代 平均 0.55, 60年代 平均 0.48, 70年代 平均 0.26와 같이 현저하게 低下하고 있다. 이것은 限界固定資本係數의 증가에 비해 GNP成長率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限界固定資本係數/GNP成長率)의 係數는 技術進步의 寄與도가 클수록 작은 값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就業者增加率/GNP增加率)의 係數는 60年代 후반에 0.37, 70年代前半에 0.47, 70年代 후반에 0.24와 같이 역시 低下되는 傾向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勞働力의 측면에서 본다면, 勞働力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이 上昇함에 따라서 高級人力의 就業增加率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資本量投入의 측면에서는 社會間接資本을 비롯한 生産者耐久施設投資와 機械設備 등의 增加率은 1~4次計劃期間 중에 각각 8.7%, 22.0%, 22.7%와 같이 다소 低調한 水準에 놓여 있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國際競爭力強化의 觀點에서는 매우 不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資本量投入의 不振狀態는 금후의 國民總生産과 就業構造의 産業間移動의 측면에서 충분히 再檢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령, 1~4次計劃期間의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構成比는 1次産業에서 거의 2次産業으로 移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産業別就業構造에서는 1次産業에서 감소되는 동시에 2·3次産業으로 吸收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결국 國民總生産과 就業構造는 1次産業에서 2, 3次産業으로 옮겨가는 産業間移動이 크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뒷바침하는 데 있어서는 資本投入이 보다 安定된 水準에서 유지되어 가야 할 것 같다.⁽³⁷⁾

(36) 勞働 및 資本과 技術進步의 寄與도에 관해서는 데니슨(Denison)方法 등에 의한 細部的인 研究 結果가 있다. 이 結果에 따르면, 1968~77년에 勞力과 資本의 寄與度는 각각 30%와 30%이며, 技術進步의 寄與度는 40%로 推定한 바 있다. 宋丙洛, 앞의 책, 1981, pp. 97-101. 참조.

한편, 本稿에서 推定한 1968~77년의 勞働과 資本의 寄與度는 30.5%와 25.6%, 技術進步度의 寄與度는 43.9%로 나타난다.

〈表 23〉經濟成長要因의 推定

觀測期間	GNP 成長率 (1975年不變價格)	勞		動		資			本		(7) 限界固定資本係數 GNP 成長率(不變)	(8) 業者就業增加率 GNP 成長率(不變)	(9) 勞動者寄與度(%)	(10) 資本의 寄與度(%)	(11) 技術進步의 寄與度(%)		
		(1) 就業增加率	(2) 勞動力人口의 經濟活動增加率	(3) 教育水準別就業者增加率 實業高校 專門大學	(4) 社會固定資本의 增加率(價格不變)	(5) 機械設備의 增加率(不變價格)	(6) 生產者耐久施設의 增加率	(7) 限界固定資本係數 GNP 成長率(不變)	(8) 業者就業增加率 GNP 成長率(不變)	(9) 勞動者寄與度(%)						(10) 資本의 寄與度(%)	(11) 技術進步의 寄與度(%)
1954~60	3.7	—	—	—	4.1	23.1	17.2	0.55	—	—	—	—	—	—	—		
1954~55	4.8	—	—	—	4.0	59.4	37.5	0.33	—	—	—	—	—	—	—		
1956~60	3.3	—	—	—	4.1	8.6	9.2	0.64	—	—	—	—	—	—	—		
1961~70	8.4	—	—	—	9.4	24.2	26.9	0.48	—	—	—	—	—	—	—		
1961~65	6.5	—	—	—	5.8	12.6	12.6	0.66	—	—	—	—	—	—	—		
1966~70	10.4	3.5	55.7	43.1	13.0	38.1	41.2	0.30	0.37	26.2	32.8	41.0	—	—			
1971~80	8.3	3.5	57.0	50.5 ¹⁾	8.0	18.0	14.8	0.26	0.36	26.4	20.0	53.6	—	—			
1971~75	9.0	4.0	56.4	47.0	7.7	11.1	12.6	0.40	0.47	29.8	19.6	50.6	—	—			
1976~80	7.5	3.0	57.6	56.2 ²⁾	8.2	25.0	16.9	0.12	0.24	23.0	20.4	56.6	—	—			
經濟計劃期間																	
1962~80	8.5	—	—	—	8.7	22.7	22.0	0.37	—	—	—	—	—	—	—		
1次: 1962~66	7.9	—	—	—	8.5	40.0	40.0	0.63	—	—	—	—	—	—	—		
2次: 1967~71	9.7	3.6	55.8	45.5	12.7	14.8	18.7	0.33	0.40	27.2	31.2	41.6	—	—			
3次: 1972~76	10.2	4.5	56.9	47.7	8.5	11.8	11.0	0.37	0.48	34.4	21.4	44.2	—	—			
4次: 1977~80	5.7	2.2	57.6	—	6.9	24.7	17.4	0.11	0.20	16.8	17.0	66.2	—	—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 347, 1981, p. 4.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80, p. 256, pp. 282-283.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pp. 22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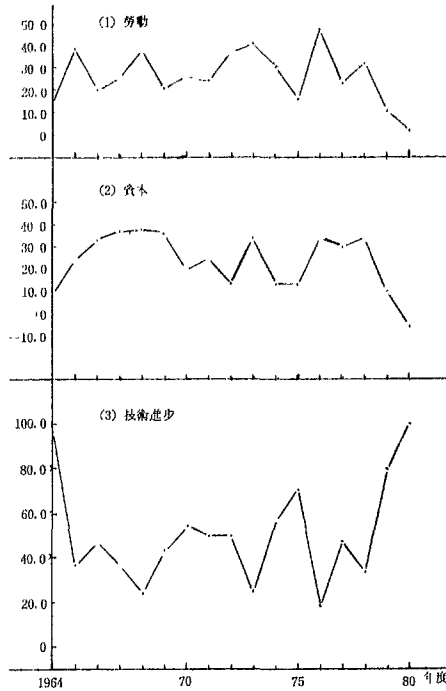
韓國銀行, 『1980年國民總生產暫定推計』, 1980年 12月, p. 13.

註: 1) 1971~78年 平均.

2) 1976~78年 平均.

3) (7)의 限界固定資本係數는 1975年 不變價格基準($\frac{\text{固定資本形成}}{\text{GNP}}$ / GNP 成長率)에 의한 推定值를 사용한 것임.

勞動力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經濟活動人口/14歲이상 人口.



〈그림 5〉 勞動·資本과 技術進步의 寄與度

(4) 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의 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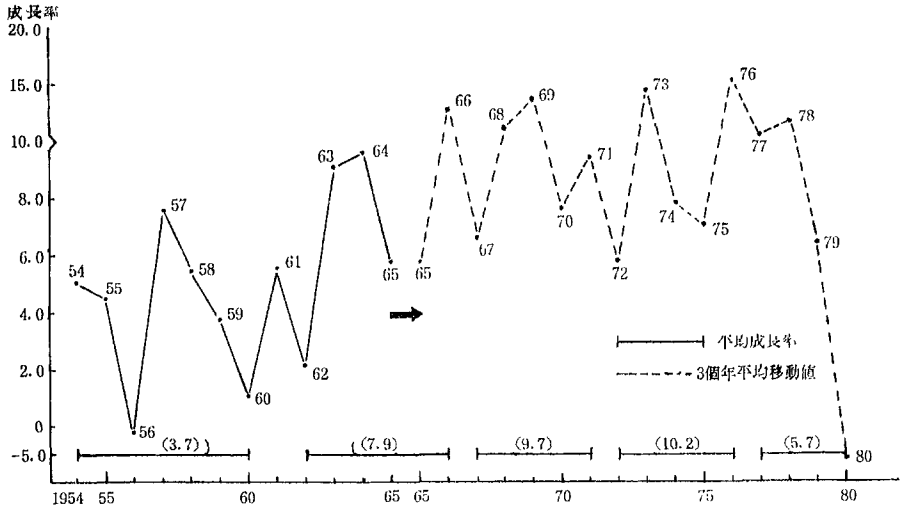
經濟成長要因으로서의 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의 對前年增加率의 變動을 살펴 본다. 1955~80年の 固定資本形成과 住宅 이외의 固定資本形成의 增加率, 生産者耐久施設의 增加率, 그리고 機械設備投資의 增加率은 거의 13~15個年間の 長期的인 循環變動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6〉~〈그림 9〉 참조).

이들 固定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의 增加率의 變動을 〈그림 6〉~〈그림 9〉에서 經濟成長率과 대응시킨 것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2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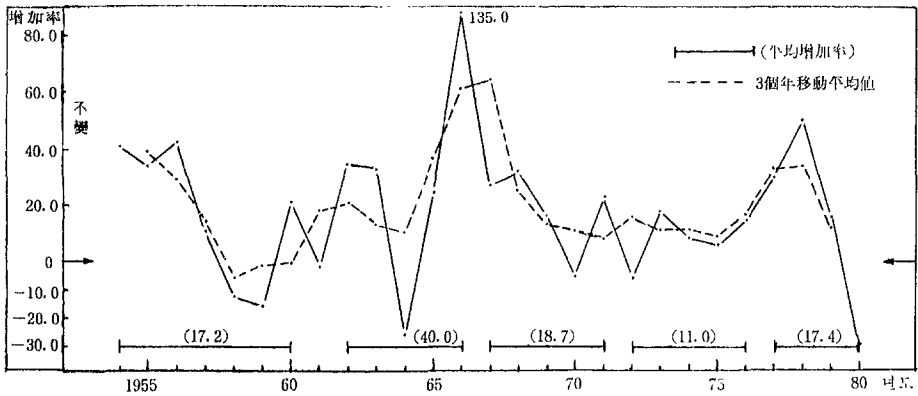
(37) 産業別 就業構造와 國民所得의 構成 單位: %

計 劃 年 度	就 業 構 造			國 民 所 得 構 成(不 變)		
	1 次	2 次	3 次	1 次	2 次	3 次
1962~66	63.5	8.7	27.8	43.6	12.2	44.2
1967~71	51.5	13.9	34.6	32.8	17.9	49.3
1972~76	47.9	17.8	34.3	25.6	26.3	48.1
1977~80	37.5	23.0	39.5	19.1	33.2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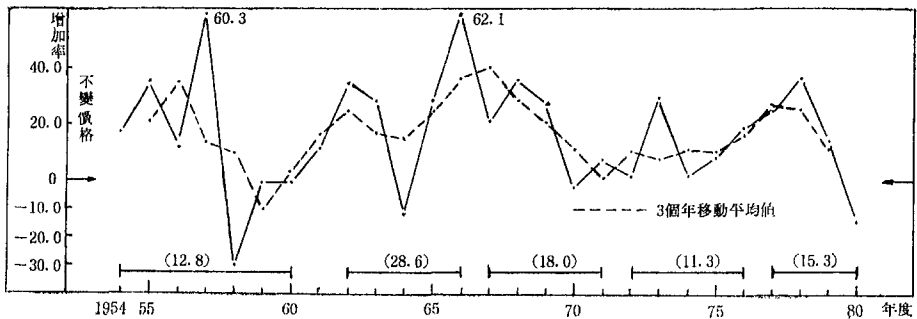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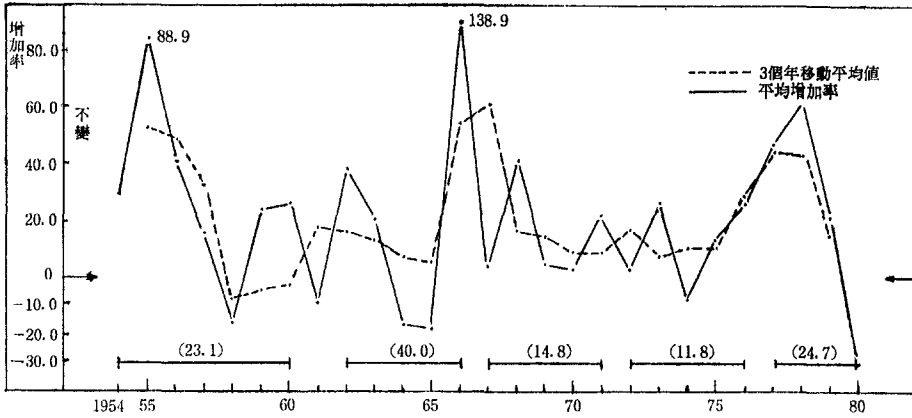
〈그림 6〉 經濟成長率(1954~80) (1975年 不變價格基準)



〈그림 7〉 生産者耐久施設의 增加率



〈그림 8〉 住宅以外的 固定資本形成의 增加率



〈그림 9〉 機械設備의 增加率 (3個年移動平均値)

(i) 1954~64年の 固定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의 增加率は 1955~65年の 經濟成長과 거의 일치하는 循環變動을 지나고 있다.

(ii) 1965~80年の 固定資本形成 및 民間設備投資의 增加率과 經濟成長率의 循環變動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1次 計劃期間까지의 固定資本形成을 중심으로 한 生産者耐久施設과 機械設備投資의 成長率의 變動은 經濟成長率의 變動에 대해 거의 1個年정도의 先行時差를 갖고 있으며, 2次~4次 計劃期間에는 이들의 循環變動이 동일한 時點에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經濟成長率과 固定投資率(對 GNP)의 關係

經濟成長率을 규정하는 供給側面의 要因인 固定投資率간의 關係를 〈그림 6〉에서 살펴 보면, 50年代에서 60年代, 그리고 70年代에 걸쳐서 固定投資率이 높을 수록 經濟成長率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關係의 變動傾向을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오른쪽 위편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年代別로 固定投資率이 높을 수록 經濟成長率은 低下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先後進國간의 國際比較에 의하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超先進國에서는 固定投資의 概念의 범위가 開發途上國에 비해 광범하며, 특히 美國과 英國, 캐나다에서는 生産能力에 비해 有效需要가 낮은 이유 때문에 投資率에 비해 實質GNP의 成長率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³⁸⁾

이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高度成長期에는 결국 높은 投資率에 의해 뒷받침되어 온

(38) 篠原三代平, 『日本經濟論講義』, 1967, p. 10.

拙著, 『韓國經濟의 進路와 經濟政策』, 서울大經營大學, AMP教材, 1981. 3, pp. 51-52.

〈表 24〉總投資率과 固定投資의 變動(1954~80)

(%)

年 度	1975年 不變價格基準			總投資의 增加率(對前年)	
	總投資率 (對 GNP)	固定投資率 (對 GNP)	固定投資의 產出係數	經常價格基準	1975年不變 價格基準
1953	13.7	5.6	—	—	—
1954	11.0	6.8	0.7	6.8	-15.1
1955	10.8	7.6	0.6	72.5	2.1
1956	8.1	8.5	0.2	-4.3	25.7
1957	14.5	9.1	0.8	122.4	92.7
1958	11.7	8.1	0.6	-12.9	-15.4
1959	8.2	8.1	0.5	-7.9	-27.1
1960	8.3	8.6	0.1	9.5	3.0
1961	9.9	8.4	0.6	45.5	34.7
1962	9.6	10.6	0.2	17.6	-0.4
1963	17.8	12.3	0.7	100.2	102.5
1964	12.4	10.2	0.9	10.4	24.1
1965	12.2	12.3	0.4	20.2	4.4
1966	18.8	17.3	0.6	85.2	74.1
1967	20.2	20.0	0.3	25.4	14.3
1968	24.7	24.7	0.4	52.4	36.1
1969	30.8	27.0	0.4	45.3	41.9
1970	28.1	25.3	9.3	15.7	-1.8
1971	28.1	24.8	0.3	15.6	9.4
1972	24.2	23.3	0.2	5.1	-8.9
1973	36.9	25.6	0.5	53.5	28.1
1974	30.7	25.5	0.3	69.6	23.0
1975	29.4	26.0	0.3	26.7	2.7
1976	27.6	25.9	0.5	17.2	8.0
1977	31.0	29.7	0.3	37.5	24.0
1978	37.8	37.1	0.3	53.7	35.9
1979	41.5	38.0	0.2	44.2	17.5
1980	32.5	33.6	0.1	5.6	-24.2
觀測期間					
1954~60	10.4	8.1	0.5	27.7	9.4
1954~55	10.9	7.2	0.7	42.7	-6.5
1956~60	10.2	8.5	0.4	21.8	15.8
1961~70	18.5	16.8	0.5	41.8	32.0
1961~65	12.4	10.8	0.6	38.8	31.1
1966~70	24.5	22.9	9.4	44.8	32.9
1971~80	31.0	29.0	0.3	32.9	11.6
1971~75	27.9	25.0	0.3	34.1	10.9
1976~80	34.1	32.9	0.3	31.6	12.2

經濟計劃期間					
1962~80	25.5	25.5	0.4	36.9	21.6
1次: 1962~66	14.2	19.7	0.6	46.7	40.9
2次: 1967~71	26.4	24.4	0.3	30.9	20.0
3次: 1972~76	27.8	25.3	0.4	34.4	10.6
4次: 1977~80	35.7	34.6	0.2	35.3	13.3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8, p. 18.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pp. 202-204.

註: Δ GNP/固定投資 = 產出係數.

것은 사실이지만 70年代 後半의 GNP成長率과 固定投資率의 關係(打點)가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은 주로 生産能力에 비해 有效需要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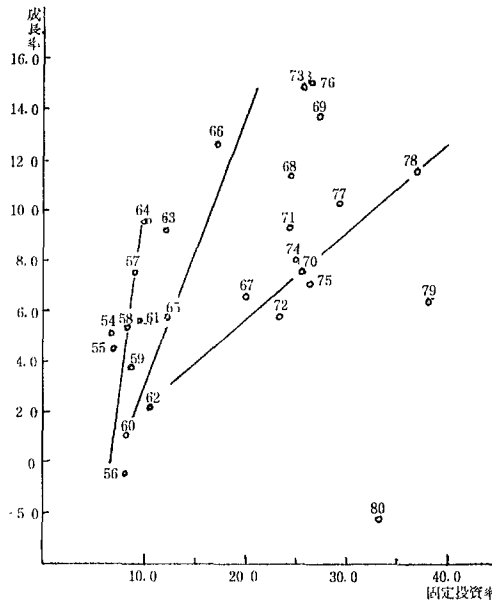
또한 <表 24>과 <그림 6>에서 GNP成長率과 固定投資率의 변동을 보면, 오른쪽 위편에 위치하는 年度일수록 產出係數(Δ GNP/固定投資 즉, 固定投資에 대한 產出效果: 1975年 不變價格基準)가 높으며, 이 產出係數는 50年代에서 70年代 前半期에는 上昇하나, 70年代 후반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低下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 70年代 후반이후에 總投資중에서 更新投資의 比重이 다소 높아져 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機械設備 혹은 生産者耐久施設 등의 增加率이 크게 鈍化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³⁹⁾

4. 輸出入構造變動의 分析

우리나라의 輸出入의 長期的인 伸長(經常價格基準)을 <表 25>와 <그림 11>에서 살펴본다면, 1952~80年間に 輸出은 무려 632倍, 輸入은 104倍의 규모로 擴大된 셈이다. 輸出入의 對前年增加率은 각 期間마다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60~70年代에 크게 伸長하였으며, 年平均 輸出增加率은 50年代에 8.2%, 60年代에 38.5%, 그리고 70年代에 37.4%로 확대되었다. 또한 輸入增加率은 50年代에 9.8%, 60年代에 21.8%, 70年代에 29.0%로 증가하였다.

이 輸出入增加率을 1~4次計劃期間에 걸쳐서 본다면 輸出增加率은 각 計劃期間에 43.9%, 33.8%, 50.9% 및 22.9%이며, 輸入增加率은 각 計劃期間에 21.3%, 28.0%, 32.4% 및 26.8%와 같이 크게 伸長하였다. 1~3次計劃期間의 輸出入增加率을 비교해 보면, 輸出增加率이 輸入增加率을 크게 上廻하였으나, 4次計劃期間의 輸出入增加率은 油類波動의 충격과

(39) 國際比較에 의하면 成長率이 낮은 나라일수록 總投資에 접하는 更新投資規模는 높으며, 또한 產出係數는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0〉 GNP成長率과 固定投資率의 關係(1954~80) (1975年 不變價格基準)

1980년의 政治的인 혼란등에 따른 不況期로서 低調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40)

이같이 輸出入은 크게 伸長되어 왔으나, 이와 반대로 貿易收支의 赤字幅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貿易收支의 動向은 1956~60年 年平均 3億 2千萬달러이며 1~4次計劃期間의 年平均은 각각 3億 7千萬달러~32億 7千萬달러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41) 이와같은 貿易收支의 赤字幅의 擴大傾向은 곧 交易條件의 惡化를 초래하여 外貨稼得率을 低下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恒久的인 對策, 즉 輸出入價格政策, 品質改善 및 技術革新 등의 側面에서 對處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輸出競爭力은 더욱 弱화될 것이 分明하다. (42)

(40) 拙稿, 『韓國經濟의 進路와 經濟政策』, 서울大經營大學, A.M.P.教材, 1981.3, II, pp.61-62.

(41) 貿易收支의 赤字狀況(年平均)

1953~60	323.3	1967~71	1,072.0
62~80	1,468.0	72~76	1,511.3
62~71	376.0	77~80	3,273.8

(42) 邊衡尹·金潤煥 編者, 『韓國經濟論』, 1977, p.683, 第17章 참조.

朴炳鎬, 『韓國貿易論』, 1980. p44.

拙稿, 「輸出入變動要因에 관한 實證分析」, 『貿易研究』, 1971, 3卷 1號, 韓國貿易研究所, pp.69-72 참조.

가령 우리나라의 總輸出函數의 計側(1960~70)에서, 全世界의 總輸入額(M_w), 總産業生産指數(K_{ip}), 全世界와의 輸出競爭力指數(U_{ep}/K_{ep} : U_{ep} =全世界의 輸出價格指數, K_{ep} =韓國의 輸出價格指數)에 의한 우리나라의 輸出函數는 아래와 같았다.

〈表 25〉 輸出入增加率의 變動(1953~80) 經常市場價格基準, (%)

年 度	輸 出				輸 入			
	總 額 (百萬달리)	增 加 率	1952=100 指 數	1960=100 指 數	總 額 (百萬달리)	增 加 率	1952=100 指 數	1960=100 指 數
1952	27.7	—	1.00	0.84	214.2	—	1.00	0.62
1955	18.0	-25.6	0.65	0.55	341.4	40.3	1.59	0.99
1960	32.8	65.7	1.18	1.00	343.5	13.1	1.60	1.00
1965	175.1	47.0	6.32	5.34	463.4	14.6	2.16	1.35
1970	835.2	34.2	30.15	25.46	1,984.0	8.8	9.26	5.78
1975	5,081.0	13.9	184.43	154.91	7,274.4	6.2	33.96	21.18
1980	17,504.9	16.3	631.95	533.69	22,291.7	9.6	104.07	64.90
觀 測 期 間								
1953~60		8.2				9.8		
1953~55		-7.2				24.0		
1956~60		17.4				1.3		
1961~70		38.5				21.8		
1961~65		40.3				8.8		
1966~70		36.8				34.8		
1971~80		37.4				29.0		
1971~75		46.1				32.4		
1976~80		28.7				25.6		
經濟計劃期間								
1次:1962~66		43.9				21.3		
2次:1967~71		33.8				28.0		
3次:1972~76		50.9				32.4		
4次:1977~80		22.9				26.8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0, p. 3, 1980, p. 3, pp. 266-267.

韓國銀行, 『統計月報』, 1981. 3,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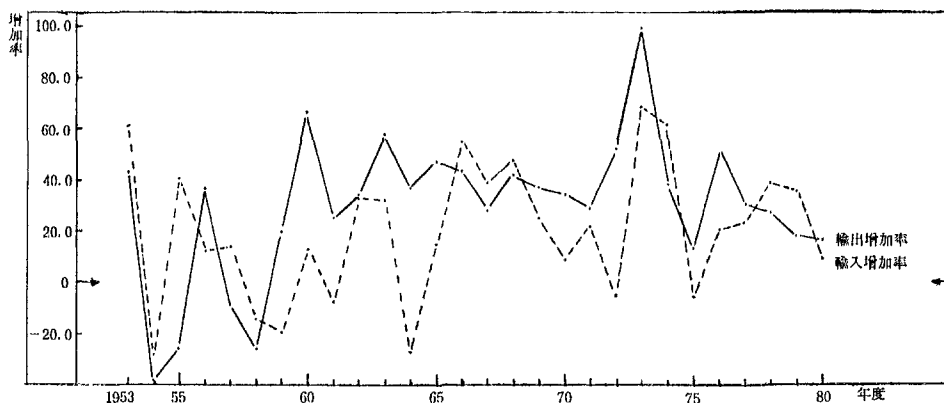
〈表 26〉에서 1962~80年間の 實質輸出入(名目輸出入額/輸出入單價指數)의 對前年增加率을 살펴보면 이들의 增加率은 점차적으로 크게 低下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實質輸出의 增加率은 60年代에서 70年代 전반기에 이르는 사이에 平均 41.2% (66~70年平均 33.9%)이며, 70年代의 年平均增加率은 24.0%(71~75年平均 31.8%, 76~80年平均 16.2%)와 같이 높은 伸長率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實質輸出의 增加率은 70年代 후반기 이후의 油類波動을 비롯한 國際的인 不況과 國內與件 등으로 인해 1974~80年(단, 1976年除外) 平均 11.7%의 低調한 伸長率로 나타났다.

$$X_{kt} = -5.4474 + 0.9763M_{t-1} + 1.9874K_{t-1} + 3.0788(U_{t-1}/K_{t-1})$$

$$(-2.8928)(1.2901) \quad (5.1649) \quad (1.7219)$$

R=0.9966, S.E.=25.9752, D.W.=1.5456, ()內는 t值임.



〈그림 11〉 輸出入增加率의變動(1953~80)(1975年不變價格基準)

한편, 實質輸入의 增加率は 그 變動樣相이 매우 不規則的으로 나타나나, 一般的인 傾向으로서는 1965年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즉 60年代 平均 25.2%(62~65年平均 12.5%, 66~70年平均 35.3%)이며, 70年代 平均 14.2%(71~75年平均 11.9%, 76~80年平均 16.5%)와 같이 60年代에서 70年代의 平均增加率は 低下되어 가고 있으나, 60年後半과 70年代 후반기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實質輸出의 급격한 伸長과 實質輸入의 점차적인 감소경향은 經濟計劃이후의 輸出成長力을 주축으로 한 적극적인 工業化政策에 따른 工業構造의 變化過程과 構造別 輸出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³⁾

(43) 60~70年代의 產業構造에서 보면, 1次産業部門에서 2次産業部門으로 크게 移行되어 왔으며, 또한 輕工業部門에서 重工業部門으로 發展되어 왔다. 가령 附加價值基準(經營價格)에 의한 輕工業은 50年代에 78.9%이었던 것이, 1~4次計劃期間에 83.9~49.7%로 低下하였으며, 重化學工業은 50紀대에 21.1%이었던 것이 1~4次計劃期間에 36.1~50.3%로 高度化되었다. (拙稿, 『韓國經濟의 進路와 經濟政策』, 서울大經營大學, A.M.P.教材, 1981. 3, II. 11-12.)

補表 1. 工業構造의 變化 (%)

經濟計劃期間	附加價值基準(經常價格)	
	輕工業部門	重化學工業部門
1953~60	78.9	21.1
1962~80	63.9	41.5
1次: 1962~66	83.9	36.1
2次: 1967~71	61.5	37.5
3次: 1972~76	56.0	44.0
4次: 1977~80	49.7	50.3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p. 106.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8, pp. 274-275.

〈表 26〉實質輸入增加率의 變動(1962~80) (不變價格基準), (%)

年 度	實 質 輸 出		實 質 輸 入	
	總額(百萬달러)	增 加 率	總額(百萬달러)	場 加 率
1962	103.0	32.4	878.6	37.8
1965	306.1	41.6	910.1	12.0
1970	1,308.9	28.4	3,905.2	5.6
1975	5,001.0	19.6	6,674.4	0.6
1980	10,278.9	10.5	13,600.8	-13.6
觀測期間				
1962~70		37.1		25.2
1962~65		41.2		12.5
1966~70		13.9		35.3
1971~80		24.0		14.2
1971~75		31.8		11.9
1976~80		16.2		16.5
經濟計劃期間				
1次: 1962~66		38.9		22.9
2次: 1967~71		33.9		26.6
3次: 1972~76		33.8		13.3
4次: 1977~80		10.3		13.6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 99.

韓國銀行, 『統計月報』, 1981. 3, p. 98.

註: 實質輸出入 = 名目輸出入額 / 輸出入單價指數.

다음에는 輸出入低存度와 交易條件에 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商品의 輸出入依存度는 經濟의 自然資源의 自給度, 生産能力에 대한 國內市場의 상대적인 크기와 産業構造의 迂廻度등이 클수록 낮으며, 또한 반대의 경우는 높아질 것이다.

〈表 27〉와 〈그림 12〉 및 〈그림 13〉은 GNP에 대한 輸出依存度(1953~64年, 1965~72年, 1973~80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의 變動은 50年代 平均 2.9%(53~60年 平均 2.7%, 56~60年 平均 3.0%)에서 60年代 平均 10.5%(61~65年 平均 6.8%, 66~70年 平均 14.3%),

補表 2. 構造別 輸出의 推移 (%)

經濟計劃期間	農 產 物	水 產 物	鑛 產 物	工 產 物
1962~80	5.9	10.1	7.3	76.7
1次: 1962~66	13.0	17.2	18.9	51.0
2次: 1967~71	3.8	10.0	7.0	79.3
3次: 1972~76	3.0	6.7	1.5	88.8
4次: 1977~80	3.5	5.7	0.8	89.9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p. 194.

〈表 27〉 輸出入依存도와 交易條件指數(1953~80) 1975=100, (%)

觀 測 年 度	輸出入依存度		數 量 指 數		單 價 指 數		交 易 條 件 指 數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純商品	所 得
1953~60	2.9	10.8	—	—	—	—	—	—
1953~55	2.7	9.1	—	—	—	—	—	—
1956~60	3.0	11.8	—	—	—	—	—	—
1961~70	10.5	19.7	9.1	27.7	60.1	45.1	133.1	12.8
1961~65	6.8	15.4	3.4	13.1	54.4	44.8	121.5	4.1
1966~70	14.3	24.0	14.8	42.3	65.7	45.4	144.7	21.5
1971~80	29.6	35.7	120.3	130.7	112.8	95.0	122.8	143.4
1971~75	25.8	34.3	67.0	87.1	85.4	70.5	126.9	81.1
1976~80	35.9	40.6	173.6	174.2	140.3	119.4	118.6	205.7
經濟計劃期間								
1962~80	21.4	29.3	68.0	82.9	88.2	71.4	128.4	82.1
1次: 1962~66	7.9	16.4	4.6	15.6	56.5	44.9	125.6	5.9
2次: 1967~71	15.4	25.5	19.6	52.3	66.4	45.6	145.8	28.5
3次: 1972~76	29.2	36.1	87.9	97.5	94.4	80.9	120.8	103.0
4次: 1977~80	36.2	41.6	183.0	186.9	147.5	124.8	119.8	218.4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9, p. 99.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p. 219.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1974, 1979.

註: 輸出入依存度 = 輸出入額 / GNP.

純商品交易條件指數 = (輸出單價指數 / 輸入單價指數) × 100.

所得交易條件指數 = 純商品交易條件指數 × 輸出數量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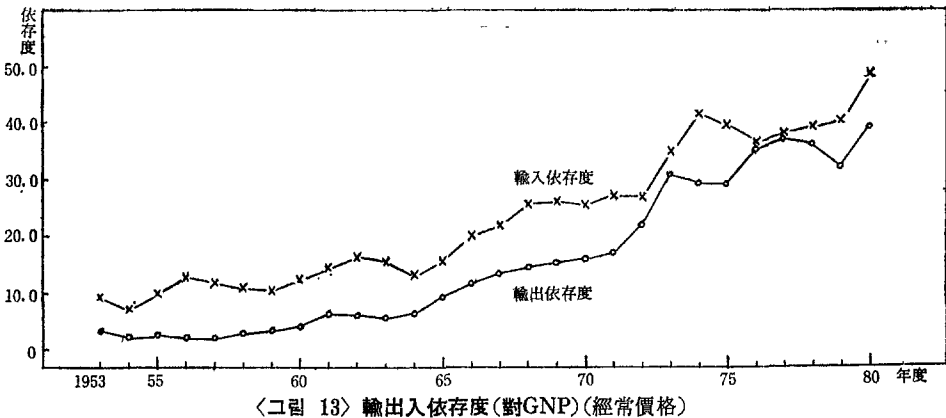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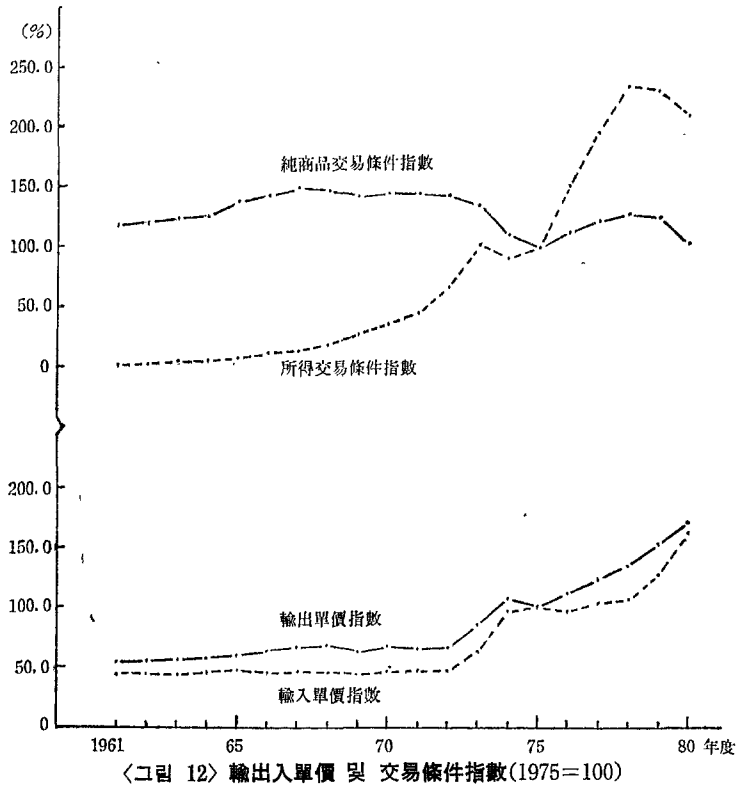
70年代 平均29.6%(71~75年 平均 25.8%, 70~80年 平均 35.9%)와 같이 커다란 比重을 積하게 되었다.

한편, 輸入依存도는 輸出依存도에 비해 그 變動幅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또한 5개의 循環變動(1954~59年, 1960~64年, 1965~72年, 1973~76年, 1977~80年)을 나타내며, 비교적 작은 變動幅으로서 이것은 景氣變動을 精確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⁴⁴⁾

이 輸入依存도는 50年代 平均 10.8%(53~55年 平均 9.1%, 56~60年 平均 24.0%) 그리고 70年代 平均 35.7%(71~75年 平均 34.3%, 76~80年 平均 40.6%)이며, 80年度는 GNP의 거의 50% 水準에 육박한 셈이다.

이같이 輸入依存도가 급격하게 上昇한 데 대해서는 經濟成長과 發展의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主要원인은 무엇보다 우리의 賦存資源과 資本財의 부족은 물론이거와, 1974年 이후의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한 過剩育成策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重化學工業部門의 育成은 우리經濟의 發展過程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

(44) 本稿, III. 韓國經濟의 成長要因에서의 〈表 14〉 成長率의 循環變動 참조.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課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資本과 技術革新을 토대로 한 規模의 經濟와 産業間의 安定的 均衡成長의 측면에서 輸出入의 誘發效果 등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⁴⁵⁾

(45) 拙著, 앞의 책, pp. 35-40 참조.

朴熊緒, 『韓國經濟의 開發戰略』, 國際經濟研究院, p. 76.

〈表 28〉 地域別 輸出入構成(對總輸出入)

觀測期間	輸 出 構 成			輸 入 構 成		
	(1) 아시아地域	(2) 유럽地域	(3) 北美洲地域	(4) 아시아地域	(5) 유럽地域	(6) 北美洲地域
1955~60	63.1	12.0	28.8	17.9	16.0	37.5
1961~70	48.9	10.4	38.5	46.6	10.1	10.7
1961~65	60.2	10.8	27.1	37.0	10.3	49.0
1966~70	37.6	10.0	9.9	56.1	9.9	32.4
1971~80	41.5	15.2	39.1	59.7	9.5	27.0
1971~75	40.6	12.5	43.2	58.6	9.1	29.1
1976~80	42.3	18.0	34.9	60.9	10.0	24.9
經濟計劃期間						
1962~80	43.9	13.1	39.9	54.4	9.5	33.1
1次: 1962~66	54.7	11.9	31.9	42.0	8.7	46.7
2次: 1967~71	36.2	8.9	53.4	56.7	10.5	31.2
3次: 1972~76	41.8	13.9	40.0	59.6	8.7	28.2
4次: 1977~80	42.7	18.1	34.3	60.7	10.3	24.7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 1980.

輸出單價指數는 1961년이후에 크게上昇되었으며, 輸入單價指數는 비교적 安定한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이로 인하여 純商品交易條件은 1961~80년에 118.5~103.9%로 다소 개선되었으며, 또한 所得交易條件도 輸出的 急伸長으로 인하여 同期間에 1.8~210.4%와 같이 크게 提高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간의 商品輸出的 量的 擴大와 아울러 輸出商品의 構造가 급격하게 高度化되었기 때문이다.

〈表 28〉에서 輸出入構成을 主要地域別로 살펴 본다면 輸出은 아시아 地域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유럽과 北美洲, 그리고 其他地域으로 分散·擴大되어가고 있으며, 輸入은 北美洲 地域에서 아시아地域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유럽과 北美洲地域에의 1955~60年平均의 輸出構成은 각각 63.1%, 12.0%와 28.8%이며, 이것이 1960年代에는 각각 48.9%, 10.4%, 38.5%, 1970年代에는 각각 41.5%, 15.2%, 39.1%와 같이 유럽과 北美洲地域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편 輸入構成에서 보면, 아시아, 유럽과 北美洲地域의 1955~60年 平均은 각각 17.9%, 16.0%, 37.5%이며 1960年代 平均은 각각 46.6%, 10.1%, 40.7%, 그리고 1970年代 平均은 각각 59.7%, 9.5%, 27.0%와 같이 輸入은 주로 아시아地域으로 옮겨져 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輸出的 地域別 構成의 경향은 금후 당분간은 아시아 地域에서 유럽 및 北美洲, 中東地域 등으로 그 底邊이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이와 반대로 輸入은 後進 및 開發途上國으로 擴大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表 29〉 主要國別 輸出入構成(對總輸出入)

(%)

觀測期間	(1) 日本		(2) 自由中國		(3) 香港		(4) 英國		(5) 西獨		(6) 美國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1955~60	51.2	10.6	0.9	1.8	9.4	1.5	3.6	2.1	1.8	6.4	23.9	35.8
1961~70	30.1	35.0	1.3	1.8	7.2	1.0	2.5	0.9	1.9	4.5	36.2	39.3
1961~65	35.2	28.0	1.5	2.0	10.6	0.9	3.1	1.0	1.4	5.2	26.3	47.5
1966~70	24.9	42.1	1.0	1.7	3.8	1.1	1.9	0.8	2.5	3.7	46.1	31.1
1971~80	25.0	35.8	1.1	1.4	3.8	0.5	2.7	1.9	4.7	3.0	34.3	24.3
1971~75	28.9	38.6	1.1	1.7	3.8	0.7	2.2	2.0	4.3	2.7	38.4	26.6
1976~80	21.0	32.9	1.1	1.1	3.8	0.4	3.3	1.7	5.2	3.3	30.1	22.0
經濟計劃期間												
1962~80	26.5	36.1	1.2	1.6	4.8	0.8	2.6	1.4	3.4	4.4	36.2	31.1
1次: 1962~66	31.0	31.8	1.4	1.9	7.7	1.1	2.9	0.8	1.3	4.2	30.7	45.5
2次: 1967~71	24.5	41.1	1.1	1.7	3.8	1.0	1.7	1.2	2.5	3.8	48.4	29.6
3次: 1972~76	28.7	37.7	1.1	1.6	3.9	0.6	2.6	1.9	4.7	2.7	34.9	25.4
4次: 1977~80	20.5	32.3	1.1	1.1	3.7	0.4	3.3	1.7	5.2	3.4	29.6	21.9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0, 1980.

여기서 다시 〈表 29〉에서 主要國別 輸出入構成을 살펴 본다면, 무엇보다도 日本에 대한 輸出入構成의 不均衡이 1965년이후에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美國에 대한 輸出入構成은 1966년 이후에 日本의 경우와는 正反對의 현상, 즉 超過輸出로 되어 있다⁽⁴⁶⁾. 이같은 對日本의 輸出入의 逆調문제는 이미 15年間이란 長久한 歲月이 經過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深度는 더욱 擴大一路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韓日間의 輸出入의 逆調의 시정은 우리나라 工業化過程에 있어서 매우 緊要한 문제란 것은 틀림없다.⁽⁴⁷⁾ 이 문제는 兩國間의 政治的인 次元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반면에 우리의 輸出入商品에 대한 國際競爭力을 彈力的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政府와 企業의 노력이 아쉽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表 30〉은 大分類基準에 의한 類別輸出入의 倍數係數(類別輸入/類別輸出)이며, 이것은 各 類別輸出에 대한 輸入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서 변화하는가 하는 輸出入의 均衡度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60~80년의 總輸出入에 관한 倍數係數를 살펴보면, 1960년의 10.46배에서 1980년의 1.27배와 같이 60年代의 總輸出入의 不均衡은 시정되어 1980年度에 0.27배로 크게 축소

(46) 拙稿, 「韓國經濟關係의 將來」, 『政經研究』, 1970, 6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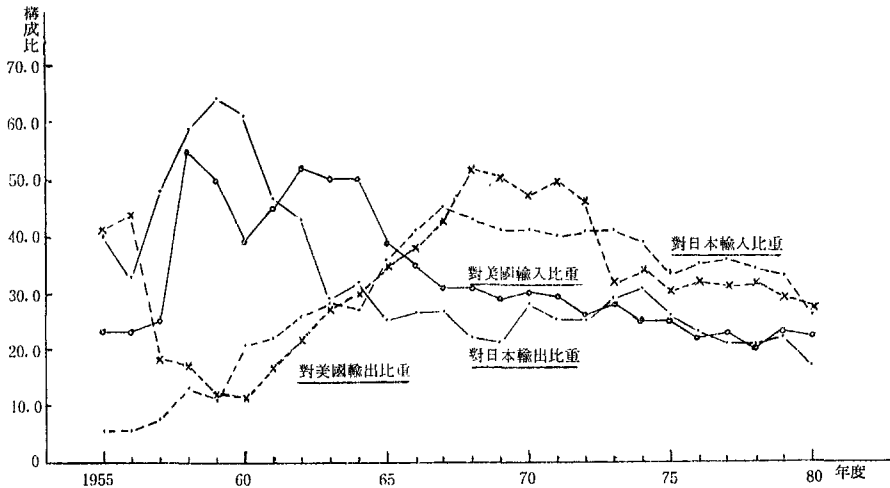
拙著, 앞의 책, pp. 68-69 참조.

(47) 拙稿, 「輸出入變動要因에 관한 實證分析」, 『貿易研究』, 1971, 3卷 1號, pp. 92-94.

〈表 30〉 類別輸出入의 倍數係數 (類別輸入/類別輸出)

品 目 別	1960~80年의 倍數係數	變動傾向	經濟計劃期間別 年平均倍數			
			1962~66 1 次	1967~71 2 次	1972~76 3 次	1977~80 4 次
總輸出入倍數	10.46~ 1.27	減 少	4.61	2.65	1.39	1.22
1. 食料品·산動物	3.25~ 1.56	//	3.12	4.57	2.56	1.16
2. 飲料 및 煙草	0.05~ 0.64	增 加	0.57	0.15	0.33	0.50
3. 非食用原料	4.33~ 10.95	//	3.61	4.29	6.03	8.44
4. 鑛物性燃料·潤滑油·類似品	20.01~199.58	//	16.11	24.57	11.20	121.71
5. 動植物性油脂	12.70~ 9.24	增加→減少	49.02	167.45	55.28	10.79
6. 化學品	189.84~ 2.35	減 少	133.22	26.32	7.60	3.60
7. 原料別製品	11.95~ 0.39	//	3.72	1.52	0.64	0.51
8. 機械類	455.52~ 1.44	//	27.91	14.45	2.94	1.75
9. 雜製品	18.58~ 0.13	//	0.44	0.18	0.11	0.13
10. 未分類	48.98~ 1.10	//	8.53	2.24	0.35	1.25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5~80에서 作成.



〈그림 14〉 對美國 및 日本輸出入比重的 推移(對總輸出入)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飲料 및 煙草, 非食用原料와 鑛物性燃料 및 潤滑油·類似品の 輸出入의 倍數係數는 增加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類別輸出入品에서는 크게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를 經濟計劃期間別의 倍數係數로 살펴 보면, 특히 化學品은 1次計劃期間(62~66年 平均 133.22倍에서 2次計劃期間(77~80年 平均) 3.60倍이며, 또한 同期間의 原料別製品은 3.72~0.51倍, 機械類는 27.91~1.75倍로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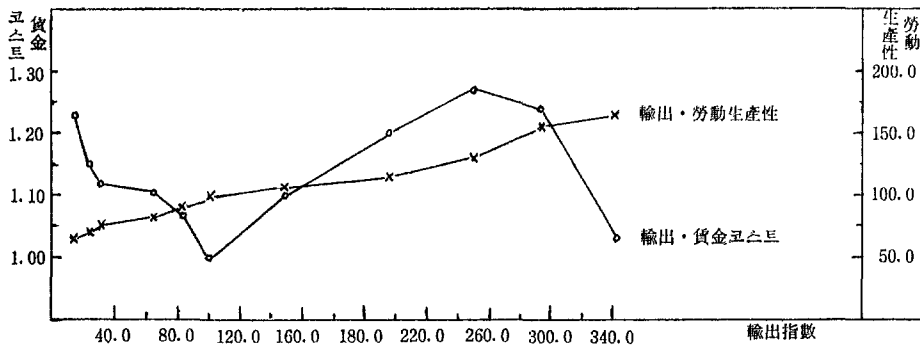
물론 이같은 係數의 변동은 輸出入構造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에 따

〈表 31〉 輸出과 實質賃金코스트指數의 推移(1970~80).

1975=100

年 度	(1) 全産業平均勞 働生産性指數	(2) 全産業實質 賃金指數	(3) 製造業勞動 生産性指數	(4) 製造業實質 賃金指數	(5) 輸出額 (백만달러)	(6) 同 指 數 (1975=100)	賃金코스트指數	
							全産業平均 (2)/(1)	製造業 (4)/(3)
1970	64.4	78.9	62.0	76.0	835.2	16.4	1.23	1.23
1971	70.1	80.3	68.0	77.7	1,067.6	21.0	1.15	1.14
1972	75.5	84.5	73.9	79.3	1,624.1	32.0	1.12	1.07
1973	81.8	91.2	80.4	90.7	3,225.0	63.5	1.11	1.13
1974	90.1	96.8	89.6	98.6	4,460.4	8.66	1.07	1.10
1975	100.0	100.0	100.0	100.0	5,081.0	100.0	1.00	1.00
1976	106.8	117.5	107.5	116.8	7,715.1	151.8	1.10	1.09
1977	117.7	140.9	118.7	141.9	10,046.5	197.7	1.20	1.20
1978	131.2	166.3	132.9	166.6	12,710.6	250.2	1.27	1.25
1979	151.5	180.3	153.9	181.2	15,055.5	296.3	1.19	1.18
1980	167.2	172.9	170.3	172.7	17,504.8	344.5	1.03	1.01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1, pp. 98-99.



〈그림 15〉 輸出과 全産業實質賃金코스트·勞動生産性(1970-80)(1975=100)

른다면 금후의 工業化에 의한 貿易收支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輸出과 生産性 및 賃金코스트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物量的 生産性의 上昇이 賃金上昇率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그 만큼의 輸出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이 物量的 生産性의 上昇도가 높은 상태일수록 賃金의 上昇速度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그 폭은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實質賃金指數를 物量的 生産性指數로서 나눈 生産量單位當의 實質賃金코스트指數의 實測値를 보면, 이 값이 낮을수록 價格競爭力은 강화될 것이며, 輸出의 伸長率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⁴⁸⁾. 〈表 31〉의 實質賃金코스트指數의 實測値를 토대로 하여 작성

(48) 拙著, 『韓國經濟의 進路和 經濟政策』, p. 58 참조.

한 것이 <그림 15>이다. 여기서 全産業의 平均勞動生産性指數와 輸出指數의 關係를 살펴 본다면, 勞動生産指數가 높을 수록 輸出量의 伸長率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年代이후의 우리나라의 賃金코스트指數는 勞動生産性指數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上昇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金후의 輸出의 價格競爭力은 低下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物的 勞動生産性이 實質賃金에 비해 낮다면 生産物 1單位當의 賃金費用이 상대적으로 上昇하여 價格競爭力의 약화에 의한 輸出量의 감소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勞動生産性의 伸長率이 다소 上昇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間接적으로 技術進步率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品質의 優良率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結 語

(1) 해방이후부터 1950年代에 이르기까지의 韓國經濟에 관한 資料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당시의 經濟分析에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

해방이후의 우리 經濟社會는 日帝植民政策의 遺物로서의 畸型的인 經濟構造와 民族史上 최악의 受難을 겪어야만 했었다. 이 당시의 韓國經濟는 生産構造의 跋行성과 赤字財政, 累進的인 惡性인플레이션에 의하여 迂回生産의 投資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生産萎縮으로 인한 慢性的 失業의 증가와 더불어 國民生活은 최악의 水準에 놓여 있었으며 自立經濟의 기반은 거의 상실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당시의 國民生活水準을 요약해 본다면, 1人當의 國民所得은 1951~52년에 56달러, 1952~53년에 58년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1951~53년에 1人當 個人消費支出의 對前年增減率은 1952년에 26.2%였던 것이 1953년에 -3.6%로 감소하였으며, 1人當被援助額은 1952년에 91.1%에서 1953년에 146.6%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2) 60年代이후의 韓國經濟는 輸出成長을 토대로 한 工業化에 의해 量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했었다. 특히 1970~75년과 1975~79년의 經濟成長率은 각각 8.8%와 10.1%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同期間의 日本經濟成長率 5.4%와 5.0%를 능가한 水準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産業別成長率(GNP_t/GNP_{t-1} , 1975年不變價格)에서 본다면, 産業間의 不均等成長에 先行되는 문제로서 1次産業部門의 不均等成長에 대한 恒久的인 政策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따라서 産業構造의 轉換點에서는 重工業化의 기반구축을 위한 貿易收支의 均等화와 輸入의 生産效果 및 外貨稼得率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實質經濟成長의 主要要因은 주로 實質消費支出, 實質固定資本形成 및 生産者耐久施設投資와 實質輸出入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實質表示의 民間消費支出과 政府消費支出은 1950年代에 비해 60~70年代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70年代 후반에는 에너지波動과 不況 등으로 인해 民間消費支出의 伸長率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實質表示에 의한 固定資本形成과 民間設備投資, 生産者耐久施設의 成長率은 50~60年代에 크게 상승하였으나 70年代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設備能力의 擴充을 위한 投資의 減少이었다.

한편 經濟成長의 要因分析에서는 經濟成長과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勞動力供給의 증대와 專門勞動力의 需要構造가 현저하게 變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勞動力人口의 經濟活動參加率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고, 점차 高級勞動力에 대한 就業率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규모와 勞動生産性和 實質賃金水準이 크게 상승되었다.

生産者施設投資도 民間設備投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60年代에 17.2~26.9%로 상승하였으나, 70年代 전반에는 그 상승경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機械設備의 증가율은 50年代 후반에서 70年代에 이르는 동안에 각 年代의 후반에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資本投入規模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生産能力은 크게 증가되었으며, 이 設備投資의 증가폭은 대체로 生産增加率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금후의 産業構造의 轉換點에 있어서 施設投資의 보다 安定된 水準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經濟成長率과 固定資本形成, 民間設備投資의 增加率의 변동을 살펴 보면, 이들은 거의 동일한 순환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經濟成長率과 固定投資率의 관계를 본다면, 固定投資率이 높을 수록 成長率은 높게 나타난다. 이들 양자의 관계는 1950年代에서 70年代 전반으로 옮겨옴에 따라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갖고 있다. 이 사실은 곧 產出係數가 높아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0年代 후반에로 옮겨감에 따라, 固定投資率이 높을 수록 經濟成長率은 저하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의 產出係數도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勞動 및 資本과 技術進步의 寄與度を 살펴 보면 勞動과 資本의 寄與度는 60年代에서 70年代로 옮겨옴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技術進步의 寄與度는 크게 상승되고 있다.

(5) 輸出入構造의 고찰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要點을 지적할 수 있다.

① 貿易收支의 赤字幅은 1977~80年 平均 32억 7천만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 숫자는 지금까지의 交易條件에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② 輸出依存度는 50年代 平均 2.9%에서 70年代 平均 29.6%로 伸長되었으며, 輸入依存度는 위의 同期間에 각각 10.8%에서 35.7%로 나타난다. 특히 1980年 現在の 輸入依存度는 GNP의 50%水準에 놓여 있다.

③ 輸出入의 單價指數에서 본다면, 純商品交易條件과 所得交易條件은 크게 提高되었다. 이것은 그간의 商品輸出의 量的 擴大와 輸出商品構造가 급격하게 高度化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外換率의 변동, 國內物價水準의 변동, 實質GNP의 증대, 外貨保有高의 조정 등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④ 總輸出入의 倍數는 60~80년에 10.5~1.3倍로 감소하였다. 類別輸出入의 倍數에서는 飲料 및 연초, 非食用原料와 油類만이 輸入增加로 인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외의 類別輸入은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⑤ 끝으로 賃金코스트指數는 勞動生産性指數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후의 輸出價格競爭力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